동물권을 알리는 음악앨범 만들기

제 출 자: 이성민
지도교사: 박상현

초록

본 논문은 작품 형식의 논문이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 불리며 동물에 대한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현 사회. 하지만 수많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바라보며 동물 문제를 알려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유기동물 문제, 번식장과 개농장 문제, 길고양이 학대 문제를 주제로 음악앨범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 더불어 아직은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지 못한 동물권에 대해 알리고 동시에 동물권 보장을 지지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다양한 문헌자료와 교육을 통해 현재 사회 속 동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알아가며, 동물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 동물이라는 넓은 분야 중 반려동물로 주제를 좁히고 반려동물 중에서도 접근과 공감이 쉬운 개와 고양이로 주제를 좁혀 유기동물, 번식장, 개농장, 길고양이 학대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한다. 유기동물 입양센터 등에서 앨범에 쓰일 사진을 촬영하고 총 3곡을 작곡한다. 작곡할 때의 가장 중점이 되는 요소는 가사로, 정확한 의도 전달을 위해 곡 설명과 가사 해석을 완성된 음악앨범과 네이버 블로그와 사운드 클라우드 등에 함께 게시한다.

본 논문의 작품인 앨범《가까운 만큼 멀리》는 작곡 분야의 전문가와 동물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께 평가 받았다. 대체적으로 의도한 내용을 곡과 가사 속에 잘 풀어냈다는 평을 받았으며 동시에 음원 파일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보컬이 잘 들리지 않아 가사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평을 받았다.

목차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논문 진행 방법 및 계획

II. 본론
1. 동물권(Animal Rights)
2. 동물권 이해수준 설문
3. 현 사회 속 동물의 피해 문제
4. 주제 탐구
5. 음악
6. 사진
7. 앨범《가까운 만큼 멀리》
8. 앨범 평가

III. 결론
1. 연구의 성과와 한계

<고마워요>
<참고 문헌>
<부록>

I. 서론

1. 논문의 동기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다. 집에서 처음 키운 동물이었고 애완이 아닌 '반려'라는 단어도 이때 처음 알았다. 평소에도 동물을 무서워한다거나 싫어하지 않았던 나는 고양이에게 남다른 애정을 주었다. 고양이에게 심하게 물렸던 적이 있다. 그 상처를 보고 할머니께선 고양이를 당장 갖다버리라고 하셨다. 또 동생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양이의 털 속에 사는 진드기 때문에 더 이상 고양이와 같이 살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키우던 고양이를 아빠가 일하던 농장에 맡기고 이사를 갔다. 나에겐 큰 상처가 되었던 일이다. 이 이후로 나는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동물 중에서도 야생동물이나 농장동물 보단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았다. 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동물과 사는 삶이, 아니 사람과 함께 하는 동물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 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던 반려동물을 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되기도 하는 고양이는 길 위에 있으면 학대당한다는 것. 조금 알고 있었지만 우주 속 먼지만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관련 영상과 자료를 찾아볼수록 충격이 커졌다. 나처럼 자세히 알지 못했던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사람들에게 현재의 문제들과 동물권에 대해 알리고 싶다.

초등학생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학교에 들어와서 작곡수업을 듣고 여러 행사에서 공연을 하며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노래, 글(가사), 사진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3가지 매체가 모두 포함된 '음악앨범'은 동물권을 더 쉽게 알리고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2. 논문의 목적

요즘 사회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동물에 대한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동물에 관한 문제들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유기동물, 강아지 공장과 개 농장, 길고양이 학대에 대한 문제를 담은 음악앨범을 통해 동물권을 알린다. 더불어 동물권 보장을 지지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3. 논문 진행 방법 및 계획

이 논문은 작품형식의 논문이다.

- 다양한 문헌자료, 인터뷰 등을 통해 동물권과 현재 사회 속 동물에 관한 문제를

조사한다.

- 학교주변, 집주변, 유기동물 입양카페 등에서 사진을 촬영한다.
- 작곡할 주제를 좁히고 총 3곡을 작곡한다.
- 완성된 음악앨범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물권, 그리고 유기동물 문제, 강아지 공장과 개 농장 문제, 길고양이 학대 문제에 대해 알린다.

II. 본론

1. 동물권(Animal Rights)

1) 동물권이란

'동물의 권리'로 동물에게도 인간과 같은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다. 인간의 이해 정의된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고 접근방식도 다르다. 하지만 동물이 하나의 돈의 가치로서, 옷의 재료로서, 실험 도구로서, 오락을 위한 수단으로서 쓰여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인간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광범위 하면서 공통적인 견해이다.

철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에 의해 주장되었다. 1975년 피터 싱어는《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에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인간 이외의 동물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라고 서술하며 '동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학대하는 것은 성차별이나 인종 차별과 같은 종차별주의'라고 주장했다.《동물 해방》은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

2) 대한민국의 동물권과 동물단체

한국에서는 서울대공원의 제돌이 방사를 계기로 널리 알려졌다. 제돌이는 2009년 5월 서울대공원에서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로 2013년 7월 18일 고향인 제주 바다로 방사된 사건을 말한다. 현재 법안엔 동물권이 명시 되어있지 않고 '동물보호법'만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 동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민법 제 98조(물건의 정의)에서 인간 이외의 유체물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물도 물건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피

해 받은 동물의 교환가치(가격) 이외의 보상도 어렵다. 예를들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구타해도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여기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인식의 성장을 방해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단체인 한국동물보호협회는 1991년에 설립되었고, 현존하는 단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동물학대방지연합은 1999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크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 '카라(kara)', '케어(care)'는 2000년대 초반에 출범했다.

3) 해외의 동물보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추가했다. 유럽 국가들이 개정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도, 물건도 아닌 제 3의 존재라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

영국은 무려 200여 년 전인 1822년 가축학대방지법을 통과 시켰고 1842년에 동물학대방지협회를 창설했다. 미국은 1830년대에 최초의 동물학대방지법안을 가결했고 1866년에 첫 동물학대방지협회를 설립했다. 독일은 영국과 함께 가장 오래된 동물권리 운동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동물보호를 의무로 규정한 최초의 국가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동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광견병 예방이 목적이었다. 위험한 개에 대한 법률, 개 소유법, 개 등록제, 공공장소에 다닐 경우 수칙 등을 공원관리조례, 놀이터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독일 국민은 국가에 '동물세'를 납부한다. 이 동물세를 통해 반려동물과 모든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국가가 제공한다. 동물세는 반려견 1마리 기준으로 1년에 15만원~100만원 정도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독일 국민들이 부담하는 동물세는 자신의 반려동물이 아닌 독일의 다른 유기동물 등을 위해 쓰인다. 판매업, 번식업의 관리가 엄격해 판매가 많지 않으며 동물보호소에서의 입양이 일반적이다.

독일의 일부 지역에선 반려견을 입양하면 강아지 학교 '훈데슐레(Hundeschule:개훈련학교)'에 다니면서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지내는 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그림 1 > - 티어하임 베를린

<그림 2> - 티어하임 베를린 전경

보통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소규모 가건물에서 운영되지만, 독일의 유기동물 보호소 <티어하임 베를린>은 축구장 22개 크기의 1500마리의 동물과 160명의 직원과 800명의 자원봉사자가 북적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기동물 보호소이다. 이곳은 1841년부터 독일 동물보호단체로서 활동을 시작했고 1901년 독일 최초의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도 통계에 따르면 수용된 동물의 합계는 1만 1348마리, 입양률은 98%이다. 1781마리의 개, 4713마리의 고양이, 2591마리의 토끼나 햄스터, 621마리의 새, 140마리의 파충류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됐다.

4) 동물운동

여기서 동물운동이란 동물의 움직임 즉, 이동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닌 동물을 위한 사람의 행동과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동물운동은 사람에 대한 운동, 동물의 복지를 높이는 운동 갈등을 줄이는 등 관계에 대한 운동이다. 설득하는 운동이 되어야하며 제도적인 방법을 찾고, 사회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한다.

주변에서 가끔 찾아 볼 수 있는 채식도 동물운동의 한 종류이다. 또 모피를 사용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 멸종위기종을 돕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동물운동이다. 사회적으로는 실험동물을 지양하며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라사르(RASAR)'와 인체의 장기기관을 본 뜬 '보디 온 어 칩(Body-on-a-chip)', 인공피부 '에피스킨(Episkin)' 등이 연구 되었고, 농장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케이지 프리 동물복지농장이 생겼다. 1983년 10월 27일과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되며 사람의 장난감이라는 느낌이 강했던 '애완동물'을 더불어 살아간다는 '반려동물'로 개칭하였다.

요즘은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운동이 가장 활발하다. 동물권을 명시한다던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한다던지, 처벌이 약한 동물보호법을 개정안을 올리는 등의 노력이 있다.

이 외에도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권 보장을 위한 동물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다.

2. 동물권 이해수준 설문

1) 설문 목적

연구를 시작하기 전 사람들은 동물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설문이다.

2) 설문 대상과 방법

설문대상은 제천간디학교 학생과 교사이다. 동물권에 대한 이해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이지만 설문대상을 외부로 넓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불특정다수이지만 가장 많이 듣고 변화 할 수 있는 대상은 제천간디학교 학생과 교사라고 생각했다. 수치를 내어 평균값을 매기기에 적은 명수인 것은 사실이다.

본 설문은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설문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2018년 6월 1일에 1차 설문(제천간디학교 1학년부터 5학년 대상)을 진행 했으며, 2018년 7월 6일에 2차 설문(6학년과 교사 대상)을 진행 했다. 총 101명이 응답했다.

3) 설문 결과

반려동물과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설문에 응답한 101명 중 23명이 전혀 없다, 44명이 살아봤다, 33명이 살고 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의 뜻과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9명, 그렇다 30명, 보통이다 19명, 그렇지 않다 20명, 매우 그렇지 않다 18명으로 답하였다. 그중 반려동물과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동물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6명, 그렇다 21명, 보통이다 25명, 그렇지 않다 30명, 매우 그렇지 않다 16명으로 답하였고 마찬가지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현재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1명, 그렇다 49명, 보통이다 13명, 그렇지 않다 2명, 매우 그렇지 않다 0명으로 약 80%가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다.

설문 결과를 해석해 보았을 때 설문에 응답한 101명의 사람들 중 대부분은 동물권에 대해 알고 있지만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다. 또 약 80%가 현 사회에서 동물은 권리를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3. 현 사회 속 동물의 피해 문제

1) 사회 속 동물의 피해 문제들

2018년, 21세기의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달라졌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 시대가 찾아왔고 고치지 못하는 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발전되기는커녕 퇴화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동물'일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물에 대한'복지'이다. 동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반려동물이 늘어난 만큼 유기동물은 매년 1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육박하고 죄 없는 동물들에게 실명에 이르는 실험을 하며, 습성에 맞지 않는 시설 속에 던져진 동물원의 동물들은 죽어가고 있다. 단순히 인간의 오락거리로만 존재하는 투우, 투계, 투견과 관광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말, 코끼리, 낙타. 뿐만 아니라 생명이 아닌 물건이나 부품 따위로 여겨지는 농장동물들은 공장식의 비인도적인 사육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살 곳을 잃어가는 수많은 멸종위기 동물들, 인간의 치장을 위해 혹은 따뜻함을 위해 가죽과 털이 뜯겨 나가는 동물들, 그저 이유 없이 주인에게 학대당하는 동물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살 곳을 잃어가는 멸종위기 동물들까지. 단 몇 줄로 짧게 줄였지만 웃고 있는 돼지나 풀밭에 있는 소와 닭, 주인과 행복한 모습의 개와 고양이의 뒤편엔 우리가 잘 모르는 혹은 감춰져있는 어두운 이면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우병이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I(Avian Influenza), 살충제 계란 등 문제가 불거지는 그 순간에 간접적으로 알아차리며 공포나 분노를 느꼈다가 어느새 잊어버리고 만다.

최근 2018년 9월 18일 대전 오월드에서 퓨마 뽀롱이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사육장을 청소한 직원이 청소 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탈출 한 것이다. 마취총을 쐈지만 제대로 마취가 되지 않아 결국 4시간 30여분 만에 뽀롱이는 사살되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퓨마'와 관련된 청원이 160건 이상이었다. 이 중 대부분은 모두 동물원을 폐지하자는 의견이었다. 동물원의 동물과 맞지 않는 사육환경, 허술한 시스템 등의 문제들이 들어난 것이다.

동물에 관련한 문제들을 쭉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연결되는 것이며 잠재적인 문제들도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을 봐야하고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시작은 아는 것부터가 아닐까.

2) 내가 다룰 문제

앞서 설명했듯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담아내기보단 더 쉽게 접하고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분야로 추려, 보다 심도 있게 담아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반려동물'로 주제를 좁히고 그중에서도 제천간디학교 학생과 교사의 반려동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1] 개, 그리고 고양이를 중심으로 다뤄본다.

(1) 유기동물 (동물 판매업)

반려인의 죽음, 실종, 납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은 유실, 유기된다. 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이유는 반려인의 변심으로 인한 유기이다. 유기란 '내다 버림.'이라는 뜻이며 법률 용어로는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로 쓰인다. 쉽게 말하자면 동물을 실수, 혹은 의도적으로 버린 것을 의미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0년에 유기동물이 발생한 건수는 6만 2천 848건으로 등록되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무려 10만 78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6~8월 휴가철 마다 유기동물의 수가 급증한다. 외출이 잦은 여름, 여행을 가면서 집과 거리가 먼 외진 곳에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오는 것이다. CCTV가 없는 곳에 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림 3> - 유기동물 월별 발생비율 (케어)

경인일보의 기사를 참고하자면 몸집이 커져 관리가 힘들어져서, 나이가 들어 못 생겨져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한다고 한다. 서울연구원에서 2014년 서울시민 5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웠던 서울시민들은 '장기간 부재'(25.9%), '경제적 문제'(11.6%), '개인적 사정'(11.65%), '이웃 피해'(8.2%)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또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42.6%가 을 그만 키우고 싶거나 유기 충동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동물을 유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다.

버려진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될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유기동물관리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분양 30.4%, 자연사 25%, 안락사 19,9% 순으로 주인에게 인도되는 경우는 겨우 1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절반 정도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1) 부록 '간디인의 동물권 이해도 설문' 결과 참고.

대한민국은 동물을 구하기 쉬운 나라이다. 집 근처 펫샵에서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으며 아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분양 받을 수도 있다. 전문 브리더나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만 입양해 올 수 있는 여러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 쉽게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반려인으로써의 준비가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을 입양(분양 또는 구매)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4> - 유기동물처리현황 (케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동물 유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다"며 "반려동물 기본지식 교육, 생명 윤리 교육, 반려동물 행동 교정 등 지속적인 소유자 의무교육을 통해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을 막을 수 있다. 직접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해외의 동물 보호'에서 서술했듯이 독일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박소연 대표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선 반려인과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이다.

2014년부터 유기나 실종, 분실 등을 막기 위한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었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xhdog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등록현황' 조사에 따르면 등록제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모두 117만 5천 516마리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2017년 전국 17개 시,도 20~64세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한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실제 등록은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의 33.5%에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분의 2에 달하는 66.5%의 가구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다.

현재의 반려동물 등록제는 오직 '개'로 한정되어있어 고양이나 토끼, 고슴도치 등을 유실, 유기 했을 때의 대안은 없는 상태이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고양이 등록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등록이 의무화된 개와 비교해 고양이는 잃어버렸을 때 반환율이 훨씬 낮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서울 중과 인천 동구 등 17개의 기초지자체만 참여해 아직 갈 길은 멀다.

앞서 말했다시피 반려동물을 입양해 올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쉽

다. 하나의 생명을 데려오는 일을 '한번 키워볼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만큼 반려동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한 없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반려동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반려동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거래를 막아야한다. 친인척, 혹은 이웃끼리의 교배를 통제하고, 불법 번식장을 막고 동물 판매업(펫샵)을 중단해야한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애견숍에서 쉽게 '구입'하고 '선물'하는 구조를 바꿔야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려동물 시장 1조에 달하는 대한민국. 마냥 좋아 보이는 그 뒤엔 매해 10만이라는 유기동물이 존재한다.

(2) 번식장

'간디인의 동물권 이해도 설문'에 참여한 101명 중 77명이 동물과 살고 있거나 살았던 경험이 있고 그 가운데 17명은 펫샵이나 마트 등에서 구매 하였다고 답했다.[2] 유리 진열장에 장난감처럼 전시되어있는 이 강아지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000여개의 번식장이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훨씬 많은 3000~4000여 곳으로 추정한다.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중 500여 곳 정도만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70%~80% 정도는 불법이다. 적발된다 해도 미신고 사유로 100만원 상당의 벌금만 내면 되는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를 따르면 전체의 약 80%가, 동물보호단체의 통계에 따른다면 약 94%가 불법 번식장인 셈이다. 우리가 흔히 강아지공장이라 부르는 번식장. 상업적 목적으로 강아지를 대량 번식시키지만 위생 상태나 동물복지 기준을 상당히 위반한 생산시설을 말한다. 그곳에서 개들은 생명이 아닌 상품을 찍어내는 '기계'로 취급된다. 좁고 더러운 뜬장에 갇혀 1년에 약 3번씩 강제 교배와 출산을 반복한다. 개들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하고, 비의료인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 *"교배조차 케이지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 그 교배도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 사람이 관여하지. 우선 모견을 꺼내서 사람 허벅지에 올려놓고 배를 딱 받쳐줘. 종견은 옆에 있어. 그런데 수컷도 몸이 힘들어서 잘 안 올라와. 그러면 사람이 고추를 잡고 막 흔들어. 수컷이 흥분해서 올라오겠지? 한손으로는 암컷의 생식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 수컷의 고추를 맞춘 다음, 수컷이 못 빼게 손으로 막아. 그러면 순식간에 교배가 돼. 완전히 강간이야. 아니면 수컷한테서 짜낸 정액을 긴 대롱이 달린 주사기에 넣은 뒤에 암컷 생식기에 그 주사기를 찔러넣어서 인공수정을 시키기도 해."*
>
> *-사설 보호소 '행강집' 및 동물보호단체 '행강'의 박운선 대표 인터뷰 발췌*

2) 부록 '간디인의 동물권 이해도 설문' 결과 참고.

번식장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다. 불법의 불법으로 꼭꼭 숨겨져 있고 동물을 생각하는 시스템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먼저 삼양케이지라고도 불리는 뜬장. 쇠로 되어있는 케이지로, 개들의 발이 푹푹 빠져 제대로 걸어다닐 수도 없다. 뜬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배설물의 처리가 쉽기 때문이다. 뜬장을 두 단으로 쌓아놓으면 위층 개의 배설물이 그대로 밑층 개에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번식장은 배설물이 썩어 오줌은 사라지고 번식장 전체가 암모니아냄새로 가득 찰 때까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 때문에 번식장 안에 들어가면 눈물이 줄줄 나온다고 한다.

<그림 5> - 번식장의 모습 (올라펫)

<그림 6> - 번식장의 모습2 (뉴스1)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한 일상이 되었다. 임신 능력이 떨어진 암컷은 안락사 또는 생매장 되고, 경매장에서 팔리지 않은 개들은 식용으로 처분되기도 한다. 또 애견미용의 실습견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애견미용학원에서 일했던 A씨는 실습견으로 이용되는 개들에 대해 “번식장에 돈을 주고 개들을 데려온다”면서 “반복된 출산으로 생식기가 커져있는 개들도 잇고, 젖이 나오는 개들도 있다”고 말했다. 초보자가 사용하는 날카로운 미용도구에 다치는 개들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번식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문제다. 한때 애견미용사를 꿈꿨던 B씨는 “실습 중 한 수강생의 실수로 개의 젖꼭지가 잘리는 사고도 있었다”고 답했다.

“케이지 문을 열면 개들이 똥오줌 범벅이 된 채 달달 떨고 있어요. 왜 하나같이 이런 꼴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어느 날 학원에 좀 일찍 갔는데 건물 앞에 탑차가 서 있더라고요. 화물칸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까 어떤 케이지는 옆으로 누워있고 어떤 케이지는 뒤집어져 있었어요. 개들이 캄캄한 화물칸 안에서 케이지 째 구르고 뒤집히면서 왔으니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어요. (중략) 개들 입장에서는 소음과 진동을 내는 쇳덩어리가 자기 몸을 계속 훑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출산한 지 며칠 안 된 개가 견뎌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번식장의 개들은 피부병을 기본으로 다 갖고 있어요. 상태가 나쁘거나, 더 나쁘거나 그 차이 뿐이죠. 피부병이라고 하면 피부가 좀 안 좋나보다, 하면서 가볍게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략) 유산할 때 쏟은 핏덩어리가 털 뭉치와 엉켜서 2차 감염이 된 모견들도 흔하고요, 장모견은 털로 갑옷을 두른 것 같은 몰골의 개들도 많아요. 털 뭉치 안에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구더기나 벌레는 당연하고요, 이게 왜 털 속에 들어가 있을까 싶은 것들, 예를 들면 기계 부품 같은 것.”

-애견 미용사 김명진씨 인터뷰 발췌

많은 사람들이 작고 귀여운 강아지들을 원하기 때문에 태어 난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는 어미의 젖을 온전히 때지도 못하고 불린 사료를 먹으며 경매장에 팔려나간다. 본래 개들은 두 달 이상 젖을 먹어야 하지만 번식장에선 생후 35일 만에 강아지를 경매장에 데려간다. 이렇게 팔려나간 강아지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지 못한 채 펫샵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월령을 2개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의사들은 2개월 미만일 때 어미와 떨어진 강아지는 면역력이 약한 탓에 파보 장염, 코로나 장염, 홍역 등의 전염성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고 말한다. 설령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평생 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제재는 미미하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4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 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정도일 뿐이다.

번식장의 개들은 처음부터 번식장에서 자란 번식견, 펫샵으로 갔지만 되돌아온 개, 유기견, 무료 분양된 개 등 무척 다양하다. 공통점이 있다면 보호자가 없고, 품종견이며, 중성화 수술(불임수술)을 받지 않은 개라는 것이다. 이 개들은 모두 언제든지 번식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현 사회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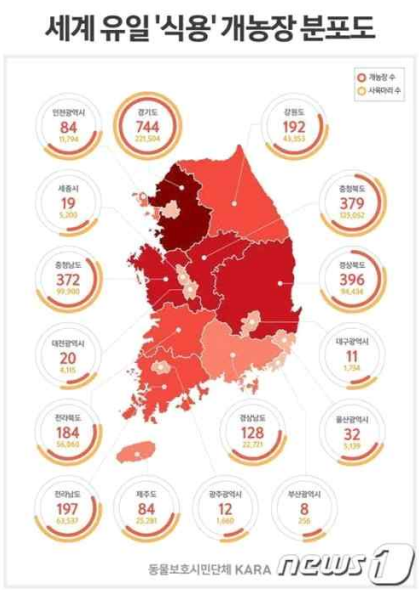
(3) 개 농장 (개식용)

이젠 세계에서 사라져 가는 개식용 문화. 전 세계에서 개를 먹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 중 대한민국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사라져 가는 문화라고 하지만 복날이 다가올 때마다 보신탕을 찾는 사람은 끊이지 않는다. 보신탕 속의 개들은 과연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일까.

카라의 조사에 따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 의무가 있는 개 농장은 최소 2,826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 농장에서 사육되는 개는 78만 1,740마리로 한 곳 당 평균 사육 두수는 273마리이다. 산속이나 외진 곳에서 사육되거나 신고 되지 않은 중소 규모 개 농장까지 포함하면 개 농장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미 의원과 카라는 ‘통계로 잡히지 않은 개 농장을 고려하면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루에만 2,740마리의 개가 도축되

는 셈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공장식, 기업형 개 농장만 해도 77개(2.7%), 500마리 이상의 개 농장은 422개(14.7%)에 달했다.

식용견을 키우는 개 농장. 대체 뭐가 문제일까. 먼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다. 사면이 뚫린 철망 뜬장(번식장의 뜬장과 거의 동일하다), 혹은 비닐하우스 내 뜬장, 상단에 비닐을 덮은 현대로 대규모 사육을 하는 것이 개 농장의 모습이다.



<그림 7> - 개 농장 분포도 (카라)

<그림 8> - 개 농장의 병든 개와 사체 (뉴스1)

비인도적 방법으로 운송하며(번식장에서 서술했던 운송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살장 앞 공간에서 대중 앞에 산 채로 전시하고 도살될 개를 골라 바로 도살한다. 대부분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직접 만든 전기도살 기구로 감전사 또는 기절 시킨 후 생체를 분해한다. 여기서 모든 개 도살은 잔인한 방법의 도살로서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이다.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등을 금지하며,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요즘은 목을 매다는 도살보다 전기감전으로 도살 시키는 방법을 더 많이 쓰는데, 이 행위는 전혀 검증된 바 없는 잔인한 도살행위이다. 개 도살은 모란시장 등

사람들에게 공개된 노상의 공간에서 동종인 다른 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개들이 동종의 죽음을 목격하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둘째로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한다. 개는 '축산법' 상에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립법' 상으론 가축으로 명시되어잇지 않은 동물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개를 사육하고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도살하여 개를 유통시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개고기를 유통,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사육 및 도축의 과정에서의 위생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식용'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다.

셋째로는 가축분뇨법을 악용하고 위반한다.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개 농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가주어야 한다. 하지만 법적 실효성 및 단속 실적은 거의 없다. 앞서 서술했듯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 의무가 있는 개 농장은 최소 2,826개 이지만, 지자체에선 1년 평균 3.64개 개 사육 시설 점검한다. 실제 대부분의 개 농장에서는 분뇨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경오염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넷째로 사료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다. 거의 모든 개 농장에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음식쓰레기와 축산 폐기물을 개들에게 급여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남은 음식물과는 다른 개념으로 머리카락, 비닐, 플라스틱 등이 포함되어있는 먹을 수 없는 쓰레기일 뿐이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서 급여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다. 농장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며 돈을 벌고, 그 먹을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에 발효제를 조금 섞어 개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고기의 맛이 달라진 다는 이유로 물은 주지 않는다.

<그림 9> - 개 농장 개의 굳은살 박힌 발바닥과 음식물 쓰레기 (카라)

<그림 10> - 개 농장의 강아지들과 음식물 쓰레기 (카라)

이 외에도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개 농장이다.

개식용 문제가 우리사회 전면에 등장한 것은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한다. 당시 외국에서 우리의 개식용 문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또한, 개식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이를 공식화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에 따라 개식용을 위한 도살, 유통과 사육과정에 대한 제도들이 제대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분쟁은 우리의 전통적 음식문화이자, 개인의 취향이고, 다른 동물에 대한 육식 섭취와 동일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주장과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반려동물로서 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시점에서 개식용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반려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18년 6월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1만 126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개식용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51.5%로 찬성한다는 응답 39.7%보다 높게 나와서, 아직까지 개식용에 대한 찬성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 농장, 혹은 개식용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봐도 한 눈에 알 수 있다. 포털사이트의 댓글은 믿지 말라 하지만 거의 모든 댓글이 '나는 개를 먹진 않지만 남의 식생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개빠[3]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댓글이다.

'개 농장'에는 반려동물 식용 국가라는 오명, 전반적인 동물복지 인식의 저해, 반려동물 문화 수준의 저하, 극단적인 동물학대 행위는 만연, 폐기물 급여로 인한 환경오염과 개의 집단 사육이 가져올 인수공통 전염병 위험 등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소음이나 악취 같은 직접적 민원과 불화를 유발한다. 인간과 개의 오랜 유대가 부정되고, 국가, 사회, 반려동물문화, 동물복지, 환경 전반에서 혹독한 수준의 대가를 요구한다. 일부의 취식자, 식용개 농장주, 도살자, 값싼 음식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는 금전적, 단편적 이익으로 상쇄할 수 없는 본질적 가치와 공공 안전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4) 길고양이 학대 (동물 학대)

길고양이는 개체수를 알 수 없을 만큼 그 숫자가 매우 많다. '길고양이'를 검색해보면 2~3개의 사이트는 길고양이 학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학대가 일어나고 그만큼 새로운 기사가 생겨난다.

바로 얼마 전인 2018년 10월 15일. 경북에 있는 한 대학교 교내 길목에서 어린 고양이 목을 잔인하게 잘라 내버려둔 사건이 발생했다. 길고양이의 목을 절단에 길목에 버려둔 것이다. 현장에는 상자가 놓여 있고 '고양이 사체가 있으므로 절대 건들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곳에는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몸이 없고 얼굴만 남아있는 어린 고양이 사체가 있었다.

3) 개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조롱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림 11> - 고양이 머리 사체 (위키트리)

<그림 12> - 눈이 뽑힌 고양이 사체 (한국일보)

<그림 13> - 화상을 입은 길고양이 (뉴스1)

<그림 14> - 토막난 길고양이 사체 (카라)

2018년 5월 26일엔 부산의 한 상점가에서 길고양이가 눈이 뽑힌 채 발견되었다. 부산 길고양이 보호연대 관계자는 “길고양이 옆에 이상한 빛깔의 고기가 놓여있었고, 피를 토한 것을 보면 독극물을 먹고 죽은 고양이를 누군가 학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분당에서는 2018년 5월 9일 길고양이가 토막살해 되었고, 3월 초엔 누군가 길고양이의 옆구리를 쇠파이프나 각목 등으로 내리찍어 죽인 학대살해 사건이 있었다. 2018년 5월 21일 경기도 김포에선 화상 입은 채 발견된 고양이를 구조했다. 고양이는 태어난 지 4개월 정도 된 새끼로, 인화 물질을 고양이 몸에 뿌리고 태운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다. 귀 안쪽 화상이 심한 상태로, 귀 안이 모두 썩고 구더기가 밖으로 계속 나오며 한쪽 청력은 이미 상실했다고 한다. 경기 성남시에서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의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카라에 따르면 지난 9일 판교 한 아파트단지에서 토막 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고양이는 가위 같은 오구로 절단된 듯 깔끔하게 절단되어있었고, 내장은 사라져 있었다.

지난 8년간 대전의 한 마을에선 고양이의 사체가 수도 없이 목격되었다. 주민과 동물 보호단체가 추적한 끝에 고양이를 죽인 사람을 찾아냈다.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닭고기에 쥐약을 묻혀 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죽은 고양이들의 수는 약 1천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고양이가 그냥 싫어서 범행을 저질

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성이 잘못을 시인하고 쥐약이 묻은 닭고기를 꺼내오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고양이 사체를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해 남성을 동물보호법상 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동물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말했던 8년간의 길고양이 살인사건처럼 학대범(혹은 살인범)을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길고양이 사건의 경우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수사당국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보니 범죄자를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관계자들이 많고, 길고양이는 주인도 없어 수사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길고양이 학대는 그라인더(연삭기) 등을 이용해 잔혹하게 죽이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 단순 학대를 넘어 혐오범죄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버려진 유기동물 등으로 인해 길고양이 개체 수가 급증하고, 이들이 먹이를 찾아 음식쓰레기를 헤집어 놓는다거나 영역싸움으로 인한 소음을 내면서 '길고양이 혐오'가 생겨났다. 더 큰 문제는 길고양이 혐오범죄가 이들을 돌보고 있는 캣맘에게로 번진다는 점이다. 한 캣맘의 말에 따르면 욕설을 듣는 건 다반사고, 종종 밥을 주지 말라며 신체위협을 받을 때도 있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동물학대, 특히 길고양이 같이 소외받는 동물에게 벌어지는 혐오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형량강화 등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예산이나 행사, 캠페인 등도 반려인 대상이 아닌 비반려인 대상으로 편성하고 개최해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주제 탐구

1) 청소년 동물권 활동가 교육 TEEN KARA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교육으로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진행한 교육이다. 총 19명의 청소년(만13~18세)이 참여했다.

(1) 교육 일정

1일차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 임순례 감독님과의 만남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하는 이유
	다른 동물 되어보기 (보드게임)
2일차	길고양이와 지혜롭게 공존하기 (삼육대학교 길고양이 동아

	리 ‘동행길’)
	동물운동과 공장식 축산에 대하여
	공장식 축산 반대 피켓 만들기
3일차	서울시 야생동물 센터 탐방
4일차	유기, 애니멀호더 등의 주제로 토론하기
	동물학대사건 새롭게 판결하기
	수료식

(2) 활동사진

<그림 15> - 비건 중식당

<그림 16> - 비건 케이크

<그림 17> - 서울시 야생동물센터

<그림 18> - 토론하기

<그림 19> - 임순례 감독님과 질의 응답

<그림 20> - 다른 동물 되어보기

<그림 21> - 수료식

<그림 22> - 수료식2

5. 음악

1) 작곡과정

주장이 있고 알리려고 하는 바가 있는 곡으로써 가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원하는 곡의 느낌, 분위기를 정한다. (유기동물에 관한 노래는 어두운 분위기가 아닌 밝은 분위기로 만들자. 피아노 반주는 순수함을 연상시킬 수 있게 하자. 등)

그에 따른 코드 진행을 만들고 이와 동시에 주제에 맞는 내용을 담은 가사를 쓴다. 이 때 너무 직설적이지 않으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코드진행에 가사를 입혀보며 자연스러운 멜로디를 만들고 어울리는 피아노 반주를 만든다.

피아노를 녹음하고 마이크로 보컬 녹음을 하고 마지막으로 베이스, 기타 등의 악기를 추가한다.

2) 노래

(1) 너라면 기다릴게

: 유기동물

① 가사

Verse.1	나랑 같이 있어줘
나른한 오후엔	이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거야
너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	나랑 같이 놀아줘
나를 만져주는	
네 손길이 너무 좋아	Chorus
	너와 함께면 어디든 다 좋아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그 곳이 이 세상 아니어도

난 언제나 너의 옆에 서 있을게
영원히 함께할 거니까
나와 함께면 어디든 다 좋니
그 곳이 이 세상 아니어도
넌 언제나 나의 옆에 서 있어줘
영원히 함께할 거니까

Verse.2
나른한 오후엔
너의 빈자리를 채워야해
나를 만져주던
네 손길이 너무 그리워

모두들 날 두고 어디 가는 거야
나랑 같이 있어줘
몇 밤을 더 자야 돌아오는 거야
나랑 같이 놀아줘

Chorus
너와 함께면 어디든 다 좋아
그 곳이 이 세상 아니어도
난 언제나 너의 옆에 서 있을게
영원히 함께할 거니까
나와 함께면 어디든 다 좋니
그 곳이 이 세상 아니어도
넌 언제나 나의 옆에 서 있어줘
영원히 함께할 거니까

네가 내 곁에 없어도 나는 널
기다릴게 꼭 기다릴게
네가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기다릴게 꼭 기다릴게

② 곡 설명

유기동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유기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동물들(고양이등 반려동물로 키워졌던 많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다. 노래가 어둡고 슬픈 분위기가 아닌 밝은 분위기인 이유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유기동물이 반려인을 한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 세 곡 중 내가 가장 공감하며 만든 노래이다. 이별 중에서도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이별은 너무 아픈 법이다.

유기동물, 그 중에서도 특히 유기견은 버려진 자리에서 구조되기 직전까지(혹은 죽기 직전까지) 반려인이었던 사람을 기다린다. 다시 데리러 올 거라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버림받은 줄 알고 있고, 다시 못 볼 거라는 것도 알면서 모르는 척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후렴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가볍고 밝은 느낌이다. 반려동물이었던 순수함을 의미한다. 후렴에서 곡의 느낌이 확 바뀐다. 조금 더 성숙하고 차분하고 침착한 분위기이다.

③ 가사 해석

"나른한 오후엔 너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 … 이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거야 나랑 같이 놀아줘" 순수하게 반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아하고, 함께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반려동물들. 그 들은 집에 있을 때에도 반려인이 외출을 하면 문 앞에서 하염

없이 기다린다.

“너와 함께면 어디든 다 좋아 … 영원히 함께할 거니까” 나의 가설대로 유기동물들이 자신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속으로 이런 말들을 하염없이 되뇌고 되뇔 것 같았다. ‘우린 영원히 함께할 거야. 너도 나와 있는 게 좋다고 했잖아. 계속 나의 옆에 있어줘. 우린 영원히 함께할 거야.’ 라고.

“네가 내 곁에 없어도 나는 널 … 기다릴게 꼭 기다릴게” 계속 기다리면 하염없이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 믿을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 뿐인 유기동물.

(2) Repeat

: 번식장과 개 농장

① 가사

Verse.1
한없이 작아지고 작아지기 위해
모든 걸 빼앗기고 또 빼앗기기 위해
어디에 있나요 나의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나의 부모님은

Pre chorus
네모난 세상 밖 보이는 것들
나와 같은 모습 같은 눈빛뿐인데

Chorus
태어난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별이 된 이들은 어디로
길 잃은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이름 없는 이들은 어디로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
다시 이 자리겠지

Verse.2
거스를 수 없는 문화인 것처럼
끔직하고 잔인한 사실은 모두 거짓말처럼
모두 눈앞에서 쓰러져가
이젠 철장 밖을 나가기 무서워

Pre chorus
물을 마시고 하늘 보고 싶어
한걸음 내딛으면
살을 파고드는 아픔

Chorus
태어난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별이 된 이들은 어디로
길 잃은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이름 없는 이들은 어디로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
다시 이 자리겠지

반복되는 삶이 너무 싫어
끝이 보이지 않아
언제쯤 멈춰질까
언제쯤 그만둘까
이 자리로 돌아오기 싫어
끝이 보이지 않아
언제쯤 멈춰질까
언제쯤 그만둘까

② 곡 설명

강아지공장이라 불리는 번식장에서 시작해 개식용을 위한 개 농장으로 끝나는, 끝없이 반복되는 개들의 삶을 담고 싶었다. 1절은 번식장 개들의 이야기, 2절은 개 농장 개들의 이야기이다. 단순한 피아노 반주로 딱딱한 공장 혹은 영혼이 없는 곳의 느낌을 주고 싶었다. 가사가 비교적 쉽게 써진 곡이다. 이 개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커서인지(그렇다고 다른 동물은 고통이 적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가사가 마구 떠올랐다. '끝없는 반복'이 하나의 큰 주제이다.

③ 가사 해석

"한 없이 작아지고 작아지기 위해" 귀엽고 작아야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어미의 젖도 다 떼기도 전에 불린 사료를 먹으며 경매장으로 팔려나간다.

"모든 걸 빼앗기고 또 빼앗기기 위해" 모견과, 종견은 새끼를 낳자마자 바로 빼앗겨 정신병에 걸리기도 한다.

"어디에 있나요 나의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나의 부모님은" 생후 한 달 만에 떨어져야하는 모견과 새끼강아지.

"네모난 세상 밖 보이는 것들 나와 같은 모습 같은 눈빛뿐인데" 뜬장 안에 갇혀 네모난 철장 사이로만 세상을 볼 수 없는 개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풀밭도, 하늘도 아닌 자신과 같은 모습, 같은 눈빛을 가진 개들뿐이다.

"태어난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 다시 이 자리겠지" 막 태어난 새끼 강아지, 혹은 별이 되어 하늘로 간 개, 길을 잃거나 이름이 없는 개들 모두 번식장으로, 개 농장으로 가게 된다.

"거스를 수 없는 문화인 것처럼 끔찍하고 잔인한 사실은 모두 거짓말처럼" 개식용을 주장하거나 혹은 개식용 반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식용이 우리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댄다. 식용 개들이 키워지는 끔찍하고 잔인하고 더러운 환경과 그 진실은 거짓말로 치부해버린다.

"모두 눈앞에서 쓰러져가 이젠 철장 밖을 나가기 무서워" 바로 옆에 또 다른 개가 보고 있지만 전기가 흐르는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한다. 개 농장의 개들은 대부분 철장 밖을 나가면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구조되어 철장 문을 열어줘도 쉽게 나오지 못한다.

"물을 마시고 하늘을 보고 싶어 한걸음 내딛으면 살을 파고드는 아픔" 개 농장 주인들은 대부분 개들에게 물도 주지 않으며, 개의 발로는 걷기 힘들며 발이 푹푹 빠지고 하늘도 볼 수 없는 뜬장에서 지내게 한다. 심지어 농장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개들에게 먹이며 처리비를 받는다. 개 농장에서는 돈을 벌면서 개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다.

“반복되는 삶이 너무 싫어 … 언제쯤 그만둘까 언제쯤 멈춰질까” 번식장, 개 농장 개들의 가장 크고 간절한 바람이지 않을까.

(3) 나비

: 길고양이 학대

① 가사

Verse.1	Verse.2
날아가고 싶어 나비가 아닌 나비로	친절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으면 돼
도망치고 싶어 고통이 없는 세계로	나도 아프고 너도 괴롭잖아
	다른 건 바라지 않아 많은 걸 원하지 않아
길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가고 싶을 뿐이야
고통을 받고 미움을 받고	
길 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Chorus
살아가기조차 버거워 두려워	아무걱정하지 않으며 살고 싶어 내버려둬
	붙잡지 마 가두지마 괴롭히지 마 제발
Chorus	
아무걱정하지 않으며 살고 싶어 내버려둬	도망치고 싶어 고통이 없는 세계로
붙잡지 마 가두지마 괴롭히지 마 제발	날아가고 싶어 나비가 아닌 나비로

② 곡 설명

2016년 4월 6일 한 남성이 600여 마리의 고양이를 산체로 끓는 물에 넣어 죽이고 건강원에 팔았던 ‘나비탕 사건’을 모티브로 잡았다. 스트레스 해소, 단순한 혐오, 관절에 좋다는 오해 등으로 다양한 괴롭힘을 받으며, 죽음에 까지 이르는 길고양이 학대를 주제로 고통과 혐오 속에서 벗어나 그저 살아가고 싶은 길고양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학대’라는 것은 비극적이고 자극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사로 풀어내기 어려웠다. 불태우거나 자르거나 죽이는 학대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가사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거부감이 들 것 같았다. 거부감이 들 만한 단어는 최대한 피하고 가사보다는 곡의 느낌을 우선으로 생각했다. 차분하면서도 슬픈, 덤덤하면서도 진지한 느낌이길 바랐다.

③ 가사 해석

“날아가고 싶어 나비로” 고양이, 특히 길고양이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 중 가장

많이 불리는 게 바로 ‘나비’이다. 나비탕 사건에 학살된 길고양이들은 정말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길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 살아가기조차 버거워 두려워” 길고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움 받고, 고통을 받는다.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치킨에 쥐약을 넣어 몇 백 마리를 죽이는 일, 심지어는 길고양이를 챙겨주는 캣맘들에게 욕을 해가며 밥그릇을 엎어 버리는 일. 상식적이지 않고 흔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학대들은 관심만 가진다면 주변에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다.

나머지 가사는 모두 수많은 길고양이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부탁이다. 아무 걱정도 하고 싶지 않다고, 살아가고 싶을 뿐이라고.

6.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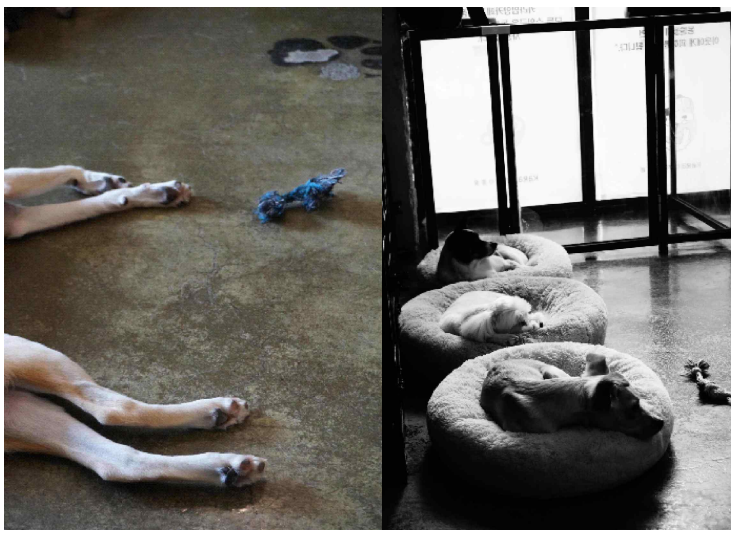
앨범 커버와 영상, 글에 사용하였다.

1) 촬영장소와 날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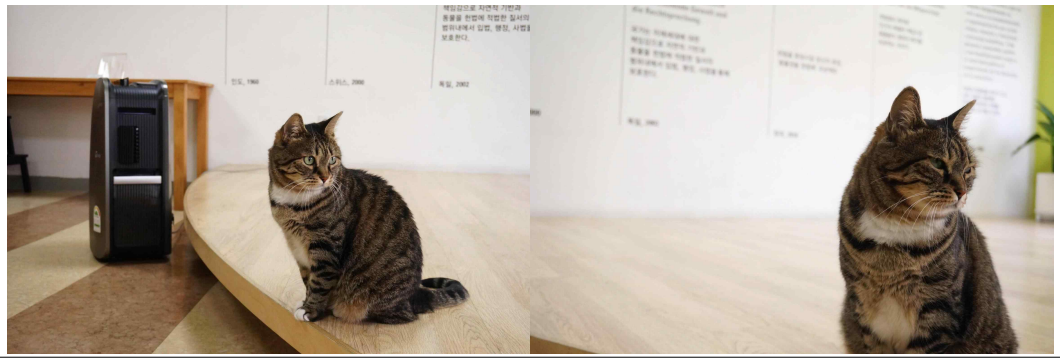
-입양카페 아름품(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122 1F): 2018년 7월 28일
-동물전문도서관 생명공감 킁킁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122 3F): 2018년 7월 18일
-반려견 ‘별이’(우리 집): 2018년 8월 23일

2)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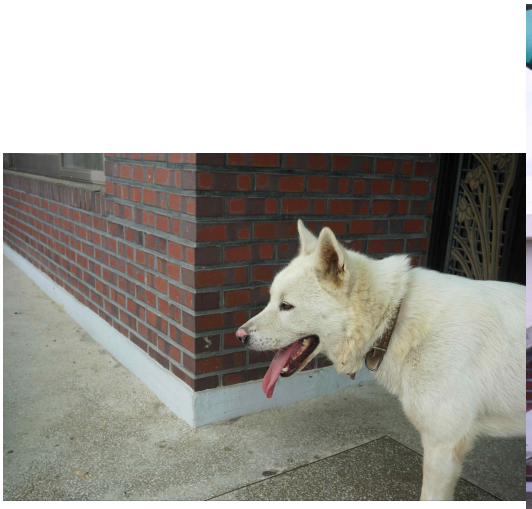
입양카페 아름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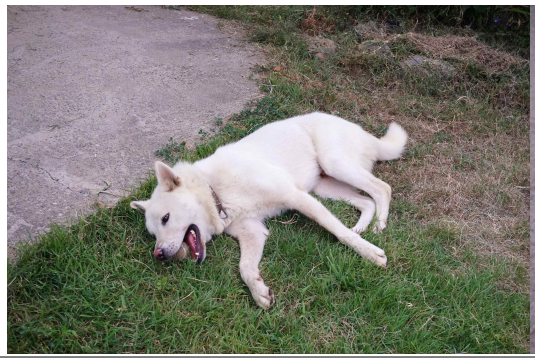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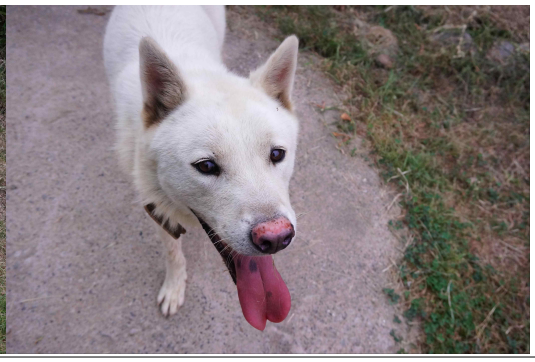


동물 전문 도서관 생명공감 큥큥



우리 집 반려견 '별이'



7. 앨범《가까운 만큼 멀리》

1) 가까운 만큼 멀리

사람과 가까이 있지만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무관심 한 것이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동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동물을 밀접한 관계이다. 그만큼 갈등도 많다. 우린 동물과 서로에게 소중한 가까운 관계이지만, 동물을 동물 자체로 멀리서 지켜보기도 해야 한다.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어떨 땐 동물을 본래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8. 앨범 평가

본문에서 제외 된 평가도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1) 간디인 평가

(1) 2018년 10월 6일 작품발표 당시 평가

-<너라면 기다릴게>는 고양이를 연상시켜요. <나비> 곡도 역시 좋았어요. 가사와 잘 어우러지는 느낌!! 본인의 주제에 충실하게 가사와 곡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멜로디가 단순한 편이라서 악기를 좀 더 풍부하게 하는 게 좋을 듯 해요.
-가사가 뻔하지 않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넝말 너무나 잘 전달 해 주는 듯.
-<너라면 기다릴게>는 고운 선율과 목소리가 특징이고, <나비>와 <Repeat>은 슬픈 정조를 가졌다. 동물권을 생각하는 작가의 마음이 느껴진다. 다만, 피아노 음이 강해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

(2) 13학번 이한슬

<너라면 기다릴게>
밝은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가사는 왠지 슬픈 게 인상적이다. 꼬리 흔들거리면서 기다리는 강아지가 생각난다. 보컬트랙 노이즈가 심하다.
<Repeat>
'단순한 피아노 반주로 딱딱한 공장 혹은 영혼이 없는 느낌을 주고싶다'고 해석에 썼던데 듣고 보니 그럴싸하다. 가사가 직설적이어서 좋은 의도를 전달하는 곡임에도 번식장과 개 농장이 연상돼서 뭔가 찝찝하다(부정적인 뜻이 절대 아님). 가사를 안보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린다.
<나비>
고양이를 좋아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반려인의 입장으로서 공감이 가고 관심이 가는 주제다보니 좀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다. 주제와 반주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중간 중간 보컬이 반주에 묻힌다.
<총평>
사실 최근 들어 동물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세 곡의 주제 역

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새로운 것을 알았다거나 신선함은 없다. 그럼에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피아노 반주와 잘 어우러지게 담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다. 위에 썼던 것처럼 노이즈나 소리가 작다 하는 것들은 감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썼지만, 음악 퀄리티 자체는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쓰고 싶지는 않다.

(3) 13학번 박성현

동물들의 입장으로 쓴 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사태를 알리는 가사, 제 3자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보다 와 닿았어요. 동물들의 시각으로 쓴 가사 덕에 문제에 대한 이해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너라면 기다릴게'를 제외하고는 가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각 곡의 분위기도 주제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4) 15학번 강연우

<너라면 기다릴게>

톡톡 튀는 피아노와 목소리가 인상적이다. 곡 3개를 앨범에 묶어 낸다면 이 노래가 타이틀 곡이면 좋겠다. 가사가 너무 이쁘고 귀엽다. 멜로디를 연결하는 센스가 있다.

<Repeat>

음원을 내도 괜찮을 것 같은 곡이다. 코드진행과 베이스 등등 단조로운 코드진행이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다. 가사가 잘 들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가사풀이를 보고 소름 돋았다.

<나비>

단조로움 뒤에 가려진 세련미가 있다. 뒷부분 베이스라인이 찰지다. 기승전결이 확실하다.

(5) 16학번 신주현

<너라면 기다릴게>

인트로의 탬버린 잘 넣은 것 같다. 훨씬 더 리듬감 있게 느껴진다. 리드미컬한 피아노 반주가 돋보이며 벌스에서 코러스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스트링이 등장해 더 풍성하고 꽉 찬 사운드를 낸다. 군데군데 포인트를 준 듯. 딱 곡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멍멍이가 나비를 쫓는 장면이 연상되었다. 어두운 곡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밝은 느낌의 곡이어서 놀랐다. 곡의 분위기 때문에 언뜻 들었을 때는 유기동물의 이야기임을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의미를 알고 들으니 전달이 된다.

<Repeat>
처음 듣자마자 베이스 라인이 너무 거슬렸다. 다른 세션들이 들어가면 괜찮을까 싶기도 한데.. 베이스 사운드가 너무 커 보컬을 방해한다. 믹싱의 문제인 것 같고, 곡 자체로만 봤을 때는 가사와 곡의 의미가 인상 깊다. 곡이 조금은 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번 쉬어가는 느낌으로 첫번째 코러스에 이어 인터루드 넣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 벨로시티 조절이 되었다면 더 풍성하고 좋았을 것 같다. 피아노, 베이스로만 진행되어 조금 아쉽다.

<나비>
나비에 담긴 이중적 의미가 좋다. 인트로 느낌 좋다. 코러스에 등장하는 베이스 라인이 좋다. 리듬감 있게 느껴진다. 코러스에서 코드가 바뀌거나 더 고조되어도 좋을 뻔 했다. 인터루트 좋다. 진지함이 사뭇 묻어난 곡이다.

<총평>
가사전달이 생명인데, 보컬 소리가 너무 작아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오히려 베이스 소리가 더 전달이 잘 된다. 다른 세션의 추가도 고려해봤으면! 보컬의 강약조절, 피아노의 벨로시티 조절이 있으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신경쓴 부분이 잘드러났을 것 같은데.. 곡이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을 주기도 한다. 가사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크게 공감된다.

2) 전문가 평가

(1) 작곡전공 손명남 선생님

<너라면 기다릴게>
이곡은 유기동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작곡자의 의도대로 슬픈 느낌이 아니라 밝은 느낌으로 가사를 잘 풀어냈다. 도입부분은 과거에 예전 주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는 행복이 느껴졌고, 후렴부분은 주인이 나를 버리고 나를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기다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곡의 느낌과 보컬의 음색이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고, 도입부분과 후렴부분의 피아노 반주 패턴을 바꿔서 변화를 주려는 의도가 가사의 내용과도 잘 연결되어 표현되었다.

작곡자는 이 곡의 가사내용을 2부분으로 나눠서 음악적인 느낌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전체적인 가사내용을 보면서 3부분으로 느낌을 나눠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번째부분> -예전 주인과 행복했던 시간들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나른한 오후엔 ~ 네 손길이 너무 좋아

<두번째부분> -주인이 점점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던 외로움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 나랑 같이 놀아줘
<세번째부분>- 버림받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주인을 담담하게 기다리는 마음
너와 함께면 어디든 다 좋아 ~ 영원히 함께할 거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밝은 느낌으로 가고, 두 번째 부분을 마이너 코드로 분위기를 살짝 바꿔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Repeat>

"번식장, 개 농장"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현실을 담담하게 노래했지만, 가사의 내용은 무겁고 슬프게 느껴졌다. 베이스 소리는 마치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투박하고 딱딱한 느낌을 잘 담았다.

Repeat에 담긴 가사의 의미가 좋은데, 웅얼거리는 노래창법과 피아노 볼륨이 강해서 그런지 가사전달이 잘 안 되어서 아쉬웠다. 작곡가의 가사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곡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가사전달이 잘 될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피아노 반주 볼륨이 같고 소리가 강한 느낌이다. 도입부분과 후렴부분을 나누어서, 도입부분에는 피아노 볼륨을 조금 줄여서 연주하고, 후렴부분에 볼륨이 조금 더 커지면 좋을 것 같다. 전체적인 소리 발란스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이 곡은 전주도 없고, 가사의 한 패턴이 끝나고 다음 패턴으로 넘어갈 때 간주도 없이 바로 들어간다. 처음 들었을 때는 가사의 내용이 무거워서 뭔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가사를 좀 생각할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듣다보니까, 제목이 "무한반복"이고 개 농장과 번식장에서 쉴틈없이 무한 반복되는 일상을 음악에서도 간주 없이 바로 이어지도록 작곡자가 의도하고 "Repeat"하도록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비>

이 곡에서 길고양이들의 간절한 부탁이 느껴졌다. 힘없는 길고양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에게 조용히 말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나를 그냥 내버려달라고..

이 곡은 전주와 간주의 피아노 연주가 좋다. 특히 마지막 간주의 피아노와 베이스의 연주는 자유롭게 나비가 되고 싶은 길고양이가 날아가는 상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선율로 그 느낌을 잘 표현했다.

하지만 가사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아쉬웠다. 이 곡은 전체적인 코드 진행이 좋고 연주도 좋아서, 가사전달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

(2) 싱어송라이터 하이디님

<너라면 기다릴게>

전체적으로 나(동물)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표현한 점에서 동물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읽고 이해하려 했다는 마음이 들어 좋았습니다.

'너와 함께면 어디든 다 좋아'로 넘어가기 전 멜로디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부분이 좋았는데 뒤에 그 부분 빼고는 멜로디언이 더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너와 함께면 어디든 다 좋아'_B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부터 반주 음형이 바뀌는데 반주상으로는 더욱 고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렇지 않아서 살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엔 이 부분이 나름의 클라이막스라고 느꼈기 때문에). A부분에서는 반려동물 특유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해맑음과 순수함이 느껴지는 어쩌면 다소 유아적인 반주 음형이 나와 의도대로 잘 표현했다고 느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반주에서 저음역대가 옥타브로 보강이 되어 곡이 처음보다 조금 더 발전한 느낌을 주어 좋았습니다. 다만 음역대가 여자가 소화하기엔 다소 낮은 감이 있어 가사 전달이나 음악적인 표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반주랑 보컬이 살짝 박자가 어긋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peat>

개인적으로는 이 가사가 제일 맘에 들었습니다. 해석을 읽고 나니 더욱 수긍이 갑니다.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공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베이스가 뭔가 노래의 Key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반복'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영혼도 사랑도 없이 그저 '번식'에만 초점을 맞춘 딱딱한 강아지 공장이라는 곳을 생각하니 오히려 그 맞지 않는 느낌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 무섭기도 했지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표현하기엔 좋았습니다.

어두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음역대도 낮게 읊조리듯이 부르도록 설정한 것 같은데 이 곡 역시 여자가 소화하기엔 다소 낮은 감이 있어 조금 키를 조정하면 가사 전달은 물론 자연스러운 전달에 있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비>

저 역시 고양이 나비와 곤충 나비를 연관 지어 생각하며 가사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고양이의 마음을 같은 단어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로 잘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같은 가사를 써주어 청자가 주제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점도 좋았습니다.

이 곡 역시 반주의 음형이 뭔가 고조될 것 같다가 다시 잠잠해져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평>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편곡을 거치고 좋은 악기와 장비로 녹음을 한다면 더 멋진 작품을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들으면서 저 역시 그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뿐만 아니라 악기로도 주제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도 훌륭합니다. 다만 세 곡 모두 아쉬운 점은 음역대가 너무 낮아 본인 목소리와 잘 맞지 않고 가사 전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3) 동물권 행동 카라 교육 아카이브팀 팀장 김명혜 활동가님

성민님이 음악에 담고 싶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작곡과 작사로 애쓰셨을 것 같아요. 음악, 예술이라는 것이 창작자의 생각과 철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뭐라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 길고양이, 개 농장 개에 대한 성민님의 경험과 생각이 표현된 것이라 그것도 평가가 쉽지는 않네요.

3) 그 외의 평가

(1) 틴카라 박현영님(18)

우선 동물권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대중들이 그나마 가장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길고양이에 관한 이야기를 녹여낸 것부터 이미 훌륭!
<너라면 기다릴게>
유기견을 다룬 곡은 너무 암울한 분위기보다 이렇게 통통 튀면서 대비되는 노래가 더 그들의 아픔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유기견이 사람에 의해 태어나고 사람에 의해 버려지며 끝내 죽는, 그들의 삶엔 '자의' 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호화롭고 비싼 것들을 주지 않아도 그저 당신 (가족) 이기에 좋아한다는 내용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와 함께면 어디든 다 좋아, 그곳이 이 세상 아니어도' 가사 최고!)
<Repeat>
개 농장과 강아지 공장을 다룬 곡은 가사에 그들은 보통의 반려견들과 다를 게 없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같은 개라는 내용이 더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개라는 하나의 종을 나눈다는 게 모순적이라는 것도) +(곡 분위기 짱짱 최고! '끝없는 반복' 을 중심으로 삼은 건 강아지 공장과 농장의 가장 포괄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너무 훌륭!)
<나비>

길고양이 이야기를 다룬 나비는 더 손 댈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의 현실을 다룬 다큐 같은 곳에 쓰여도 손색없을 만큼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고, 매일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 아무 일 없이 살고 싶은 길고양이들의 간절함이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길고양이는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다, 태어났으니 주어진 삶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식의 내용이 더 들어가면 어떨까요.

(2) 틴카라 김은지님(18)

우선 세 곡 다 정말 잘 들었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고 그 노랫말에 선율이 무게를 실어주는 느낌이에요.
<너라면 기다릴게>
반주가 비교적 단순하고 비슷한 느낌의 가사가 반복돼서(세 곡 다 그런 것 같지만) 밝고 가볍고 순수한 느낌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나-른한 오후엔'과 '나-를 만져주는' 부분의 라임이 마음에 들었어요. 동물에게 '순수함'이라는 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상화가 될 수 있어 약간의 비판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선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 관련 문제들을 알리고, 동물권 인식의 기초를 확산시키는 데에는 귀엽고 순수한 모습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5) 틴카라 김은결님(16)

원테이크로 녹음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음원이랑 가사 (시간)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곡 모두 반주법이 비슷한 것 같아 느낌이 겹치는 듯 한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간혹 코드진행이 너무 단조로운 느낌이 들지만 곡 분위기는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절제된 느낌도 받았는데 Repeat의 경우 침울한 분위기를 더 강하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자우림의 낙화 도입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나비에서 훅이 들어갈 때 더블링 되는 게 더 몰입감을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4) 자기 평가

모든 평가에 빠짐없이 보컬이 잘 들리지 않아 가사 전달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다. 더 여러 가지의 악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평, 기승전결이 부족하다는 평 등 모두 나의 기술적인 면의 부족 때문에 나온 평가라고 생각한다. 레코딩 과정에서 믹싱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대부분 의도했던 내용을 잘 전달했다고 평가해주었다. 확실히 가사를 신경 쓴 티가 나는 것 같아 뿌듯하다.

(1) <너라면 기다릴게>

가장 빨리 만든 곡이기도 하고 가장 완성도가 높은 곡이다. 나머지 두곡 보다 믹싱에 조금 더 신경 썼고 이 곡만 보컬이 안 들린다는 평이 없었다. 세 곡 중 가장 많은 악기가 들어간 곡이기도 하다. 가장 평가가 좋았다. 감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곡해서 그런지 내 스스로 가장 공감이 갔던 노래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곡이 아닐까 기대해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컬과 피아노를 따로 녹음해서 보컬의 박자가 밀린다는 것이다.

(2) <Repeat>

가장 완성도가 떨어지는 곡이라고 생각한다. 벌스와 훅을 이어주는 간주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다 결국 넣지 않았는데 간주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쉬어가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는 평가가 있었다. 베이스도 전체적인 피아노와 맞지 않고 답답한 느낌의 곡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전달하려는 주제가 답답하고 어둡고 우울한 느낌을 강조해야하는 주제였고, 어떻게 잘 끼워 맞춰진 것 같다. 가장 아쉬움이 남는 곡이다. 하지만 가사를 가장 많이 신경 쓴 곡이다. 까다로운 주제였고, 연결되어있지만 엄연히 다른 2개의 주제를 한 번에 다뤘기에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가사를 보고 소름 돋았다는 평이 있는 걸로 보아 내가 노력한 만큼 전달 된 것 같아 뿌듯하다. 하지만 보컬이 묻혀 가사 전달이 어려웠다는 평도 많았다.

(3) <나비>

가장 처음으로 완성한 곡이다. 가사보다는 곡의 분위기나 흐름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 때문인지 피아노 반주가 좋다는 평을 받았다. 굳이 장르를 정해보자면 발라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세 곡 중 가장 느린 템포로 전주나 간주가 모두 있는 곡이다. 이곡도 중간 중간 보컬이 들리지 않는다는 평을 받았고 벌스와 훅을 나눠 벨로시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피드백도 받았다. 피아노 녹음을 마치고 보컬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보컬 여러 개를 녹음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 음을 다르게 한 보컬 트랙 여러 개를 겹쳤다. 몰입감을 주는 것 같다는 평을 받아서 뿌듯하다. 나의 첫 번째 자작곡이라 그런지 개인적인 애정이 있는 것 같다.

(4) 앨범 총평

우선 '가까운 만큼 멀리'라는 제목이 무척 마음에 든다. 앨범 이름과 어울리는 앨범 커버 사진을 잘 고른 것 같다. 평가를 받을 때 곡 위주로 받아서 사진과 앨범의 전체

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앨범의 전체적인 평가를 해 보자면 우선은 퀄리티가 떨어진다. 레코딩, 믹싱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한 티가 난다. 내가 전하고자 했던 주제는 확실히 담긴 것 같다. 가사에 신경을 쓴 티가 난다.

III. 결론

1. 연구의 성과와 한계

가장 큰 성과는 내 스스로 동물에 대한 생각을 키울 수 있던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동물이란 분야의 눈꼽 만큼도 모르고 살았었다. 논문을 진행하며 동물권에 대한 생각이 뚜렷해졌다. 솔직히 논문을 쓰깆 전엔 반려견 별이에게 그렇게 큰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았던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별이가 더 소중해졌다는 점이다.

내 작품은 자세한 곡 설명과 가사 해석을 같이 보며 노래를 들어야 효과가 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 모든 것을 한 곳에 다 넣을 방법이 없었다는 게 가장 아쉽다. 설명이 있는 곳은 네이버 블로그, 뚜렷한 앨범의 모습이 있는 곳은 사운드 클라우드. 찾아갈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긴 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고마워요>

일단 나 스스로 칭찬해 주고 싶다. 정말 수고했고 고생했고 고마웠다. 항상 응원해 주고 동물에 관련된 기사를 끝도 없이 보내준 엄마와 아빠. 부끄러워서 논문에 대해 말 못하고 있었는데 먼저 물어봐 주며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준 언니. 방문을 열었다가 '아 누나 논문써야하지.'했던 유민이 이젠 같이 놀자ㅠㅠ.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항상 날카로운 일침을 날려주신 상현쌤. 맨날 오디오인터페이스랑 마이크 빌려준 주현이. 공부방에서 같이 고생한 규리, 창하, 다솜, 윤서, 한별, 소현. 알게 모르게 나를 자극 해 줬던 성진, 연우, 석연, 기휘, 현호, 우진, 재민, 성일. 작품 평가 해주신 틴카라 분들, 손명남 선생님, 하이디님, 카라 김명혜 활동가님, 한슬언니, 성현언니. 같이 놀기로 약속한 태은언니, 문형언니, 명주언니. 마지막으로 논문을 쓰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힘내라고 다독여 준, 많은 의지가 되어 준 연우 강연우! 진짜 다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1. 참고서적

동물권 행동 카라,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 단체 PNR. (2018).「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 토론회 :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동물권 행동 카라. (2016).「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동물권 행동 카라. (2016).「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

빅 이슈. (2018).「달려라 달리」. (183호). p.32-49

하재영. (2018).『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파주: 창비

한승태. (2018).「개고기의 경우」.『고기로 태어나서』. 마포: 시대의 창

2. 참고기사

강규민. 2018.05.16. “분당서 길고양이 토막살해..엽기적 학대사건 잇달아”.『파이낸셜뉴스』

구은서. 2018.01.17. “유기동물 연 10만 마리...‘공장서 찍어낸 개’ 쉽게 사고 버린다”.『한국경제』

고은경. 2017.06.22. “식용개 ‘뜬장’에 가둬놓고 하루 2,740마리 꼴 도축”.『한국일보』

김나연. 2017.07.13. “동물을 학대했는데 재산손괴죄가 적용된다고?”.『펫찌』

김민아. 2018.08.13. “독성 분석하는 인공지능 ‘라사르’”.『동아사이언스』

김연수. 2018.04.25. “애견미용 실습견 이요되는 번식장 강아지들”.『뉴스1』

김지원, 이한나, 전승엽. 2018.06.18. “[카드뉴스] 길고양이,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했나요”.『연합뉴스』

동그람이. 2018.08.28.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AI가 나왔다”.『한국일보』

명보영. 2017.12.06. “[버동수와 함께하는 동물보호 이야기]독일 동물보호소 방문기”.『뉴스1』

문지영. 2018.05.24. “김포서 불에 탄 새끼 길고양이 발견...“인화 물질 부어””.『YTN』

박주연. 2018.10.16. ““대낮에 길목에 떡하지...” 길고양이 목만 잘라 내버려둔 ‘동물 학대 범죄’”.『위키트리』

박찬범. 2018.08.18. “8년간 1천 마리 몰살...길고양이 죽인 범인 잡혀”.『SBS뉴스』

배주연. 2018.07.05. “‘반려동물 시대’라지만... 여전히 구멍난 제도들”.『오마이뉴스』

변보경. 2018.07.18. “국내 ‘음식물 쓰레기’ 40%를 사료 대신 먹는 개 농장 식용견들”.『인사이트』

신형철. 2018.10.16.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반려묘 잃어버렸다 겨우 찾았어요... 일부 지자체서 고양이 등록제 시범사업”.『서울PN』

심재훈. 2018.06.26. “표창원 동물보호법 환영하는 동물권 단체들, 시민들에 동참 당부”.『펫

매거진』
안예은, 남종영. 2018.07.18. “제돌이 자유 찾았지만, 39마리 돌고래 갇혀있다”. 『한겨레 애니멀 피플』
온라인뉴스팀. 2018.08.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불법 강아지 공자으이 추악한 실태, 96마리 모견을 구하라!”. 『대전투데이』
오성대. 2018.10.01. “동물등록제 시행 4년 됐지만...“반려동물 가구 3곳 중 2곳, 등록 안 해”. 『KBS뉴스』
오종탁. 2016.05.22. “정부“불법 개 번식장 곧 전수조사”..처벌 강화될까”. 『아시아경제』
이기림. 2018.05.23. “불붙이고 토막내고...막장 치닫는 길고양이 혐오범죄”. 『뉴스1』
이순지. 2018.05.29. “한쪽 눈 뽑힌 채 발견된 길고양이... 도 넘은 동물학대”. 『한국일보』
이학범. 2017.12.03.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98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데일리벳』
허진무. 2018.07.22. “[풀 인터뷰]동물권단체에 물어봤다 ‘개고기랑 쇠고기랑 뭐가 달라요?’”. 『경향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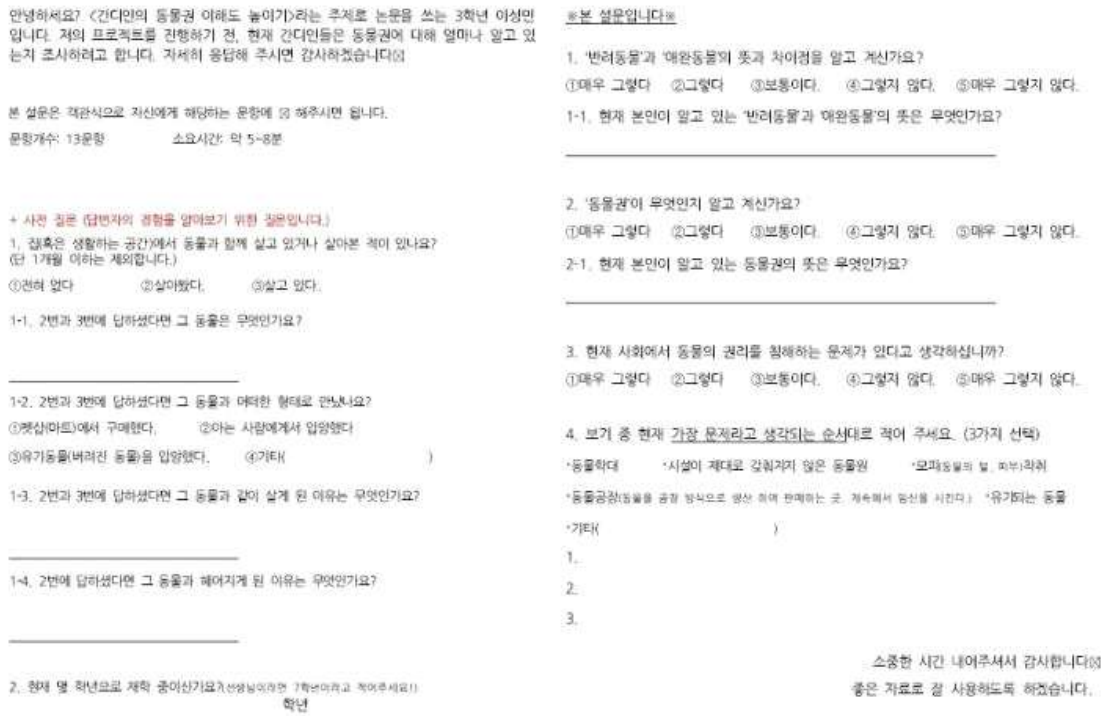
3. 참고 사이트

“동물권”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B%AC%BC%EA%B6%8C
“동물권” 나무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B%AC%BC%EA%B6%8C
“동물권” 네이버 지식백과_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38439&cid=43667&categoryId=43667
“세계 최고 동물 선진국 독일 !!!!!! 독일의 동물법. 동물세. 그리고 독일 유기동물 보호소 - 티어하임 (Tierheim)” 베리카n금빛푸들몽구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_mong9/220707795193
“동물실험” 네이버 지식백과_21세기 교양 과학기술과 사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818&cid=58939&categoryId=58951
“반려동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6006&cid=40942&categoryId=32310
“엄마아빠, 어디가요? 휴가철 급증하는 유기동물” 에너지 경제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192711&memberNo=16990721&vType=VERTICAL
“동물등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animal.go.kr/portal_rnl/vicarious/public_info.jsp
“반려동물 입양은 신중히! 책임은 끝까지!” 통계청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i_nso/221308534484
“휴가철 유기동물 급증, 예방하는 방법은?” 올치올치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009812&memberNo=29384190&vType=VERTICAL
“내 강아지는 얼마입니까?” 올라펫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217687&memberNo=615207&vType=VERTICAL
“[카드뉴스] 강아지 공장, 강제 교배에 생매장까지… 비극의 끝은?” 뉴스웨이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317925&memberNo=28983946&vType=VERTICAL

<부록>

1. 간디인의 동물권 이해도 설문



안녕하세요? <간디인의 동물권 이해도 높이기>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는 3학년 이성민입니다. 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현재 간디인들은 동물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x)

본 설문은 객관식으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항에 (x) 해주시면 됩니다.

문항개수: 13문항 소요시간: 약 5~8분

+ 사전 질문 (답변자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 집(혹은 생활하는 공간)에서 동물과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아본 적이 있나요?
(단 1개월 이하는 제외합니다.)

①전혀 없다 ②살아봤다. ③살고 있다.

1-1. 2번과 3번에 답하셨다면 그 동물은 무엇인가요?

_____

1-2. 2번과 3번에 답하셨다면 그 동물과 어떠한 형태로 만났나요?

①펫샵(마트)에서 구매했다. ②아는 사람에게서 입양했다

③유기동물(버려진 동물)을 입양했다. ④기타( )

1-3. 2번과 3번에 답하셨다면 그 동물과 같이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

1-4. 2번에 답하셨다면 그 동물과 헤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

2. 현재 몇 학년으로 재학 중이신가요?(선생님이라면 7학년이라고 적어주세요!)
학년

※본 설문입니다※

1.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의 뜻과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1.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의 뜻은 무엇인가요?

_____

2. '동물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2-1.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동물권의 뜻은 무엇인가요?

_____

3. 현재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4. 보기 중 현재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적어 주세요. (3가지 선택)

*동물학대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 *모피(동물의 털, 피부)착취

*동물공장(동물을 공장 방식으로 생산 하여 판매하는 곳. 계속해서 임신을 시킨다.) *유기되는 동물

*기타( )

1.

2.

3.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x)

좋은 자료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간디학교 학생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총 101명이 응답했다.

1) 설문 결과

1. 집(혹은 생활하는 공간)에서 동물과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아본 적이 있나요?

전혀 없다	23명	미응답	1명
살아 봤다	44명		
살고 있다	33명	총	101명

1-1. 2번과 3번에 답하셨다면 그 동물은 무엇인가요?

개	고양이	고슴도치	햄스터	곤충	새	물고기	토끼	기니피그	도마뱀	미꾸라지	거북이	미응답	총
46	16	8	7	7	8	5	5	2	2	1	2	6	115

1-2. 2번과 3번에 답하셨다면 그 동물과 어떠한 형태로 만났나요?

	펫샵에서 구매했다.	아는 사람에게서 입양했다.	유기동물을 입양했다.	기타	중복	총
살아 봤다	6명	20명	2명	9명	7명	37

살고 있다	6명	20명	1명	3명	3명	30
총	12	40	3	12	10	67

1-3. 2번과 3번에 답하셨다면 그 동물과 같이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쓰러워서	키울 사람이 없어서
동아리 활동으로	집에 혼자있기 외로워서 2
학교 과학시간 2	어쩌다 3
학교에서 줌	시골로 이사해서
키우고 싶어서 13	집 지키라고 2
엄마가 허락해서	집에 쥐가 많아서 2
같이 살고 싶어서 7	동물을 좋아해서 9
미응답 4	전부터 계획하고 있어서
동물이 있는 장소에서 생활 2	입양하고 싶어서, 갑자기 우리집에 찾아와서
동정심이 생겨서	주인이 군대 감
고양이가 계속 울어서 가봤더니 엄마품으로 들어왔다	부모님이 키워서
그냥 4	부모의 결정
가족의 권유로 2	유기견 살리기
귀여워서 7	시장에 팔아야 한다고 해서 / 언제나 같이 살고 싶었다.
활력소	
할머니가 개를 팔기위해 키웠다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서
너무 오래전이라 모르겠다	좋을 것 같아서
지인에게 받아옴 4	

1-4. 2번에 답하셨다면 그 동물과 헤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죽음 26	사나움
환경의 변화로 인한 헤어짐 6	할머니가 개를 팔았다
분양 4	주인을 찾음
집을 나갔다 6	잡아 먹어서
가정사정 때문에 3	미응답 4
천식 때문에 2	좁은 집이라 마당 있는 넓은 집에서 살기를 희망해 보냈음
엄마가 반대하셔서 2	

2.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사	미응답	총
전혀 없다	6명	4명	2명	4명	3명	1명	1명	2명	19
살아 봤다	10명	6명	6명	4명	5명	4명	8명	1명	31

살고 있다	6명	5명	5명	7명	3명	7명	0명	0명	26
미응답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1명	0
	22	15	13	15	11	12	9	4	97

1.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의 뜻과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미응답	총
전혀 없다	1명	5명	4명	4명	8명	1명	22
살아 봤다	4명	13명	9명	8명	7명	3명	41
살고 있다	4명	12명	6명	8명	3명	0명	33
미응답	0명	1명	0명	0명	0명	0명	1
	9	30	19	20	18	4	97

2. '동물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미응답	총
전혀 없다	1명	3명	5명	8명	6명	0명	17
살아 봤다	3명	10명	11명	11명	7명	2명	42
살고 있다	2명	8명	9명	11명	3명	0명	30
미응답	0명	0명	1명	0명	0명	0명	1
	6	21	25	30	16	2	90

3. 현재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미응답	총
전혀 없다	3명	11명	8명	0명	0명	1명	22
살아 봤다	14명	23명	3명	0명	0명	4명	40

살고 있다	14명	15명	2명	2명	0명	0명	33
미응답	0명	1명	0명	0명	0명	0명	1
	31	49	13	2	0	5	96

4. 보기 중 현재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동물학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모피착취 2
동물학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동물공장 2
동물학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동물공장-모피착취
동물학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유기되는 동물
동물학대-동물공장-유기되는 동물 9
동물학대-동물공장-모피착취 3
동물학대-동물공장-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 2
동물학대-동물공장-모피착취
동물학대-모피착취-동물공장 4
동물학대-모피착취-유기되는 동물
동물학대-유기되는 동물-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 2
동물학대-유기되는 동물-동물공장 7
동물학대-유기되는 동물-없음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동물학대-동물공장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동물학대-모피착취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동물공장-모피착취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유기되는 동물-동물학대

동물공장-동물학대-유기되는 동물 7
동물공장-동물학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 3
동물공장-동물학대-모피착취 2
동물공장-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유기되는 동물 2
동물공장-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모피착취
동물공장-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동물학대
동물공장-모피착취-동물학대 6 (*순서를 매기는 것은 그닥 좋은 것은 아닌 듯... 누가 더 불쌍한가를 정하게 되니까)
동물공장-모피착취,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동물학대-유기되는 동물
동물공장-모피착취-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 2
동물공장-모피착취-유기되는 동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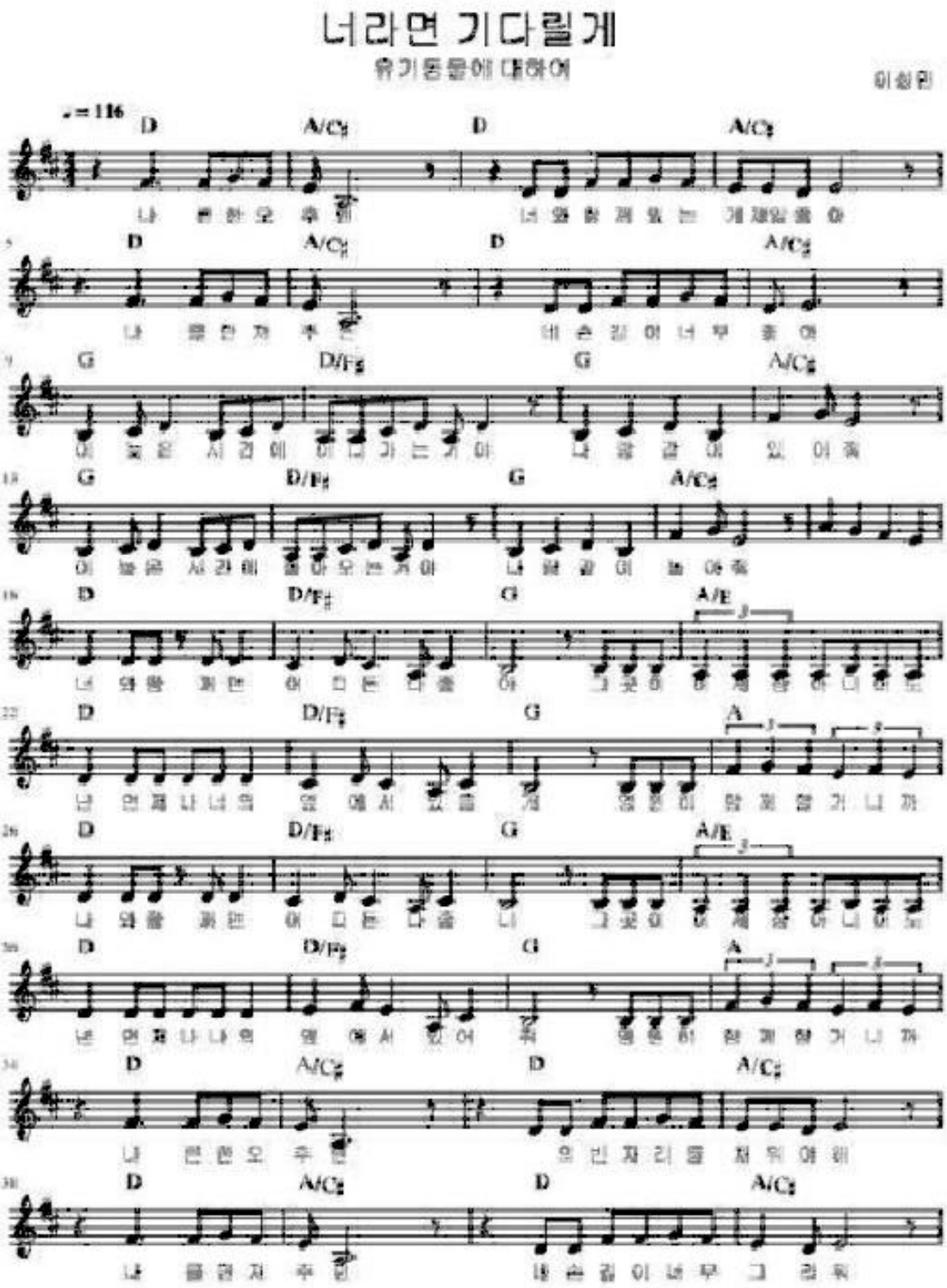
모피착취-동물학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
모피착취,동물공장-동물학대-유기되는 동물-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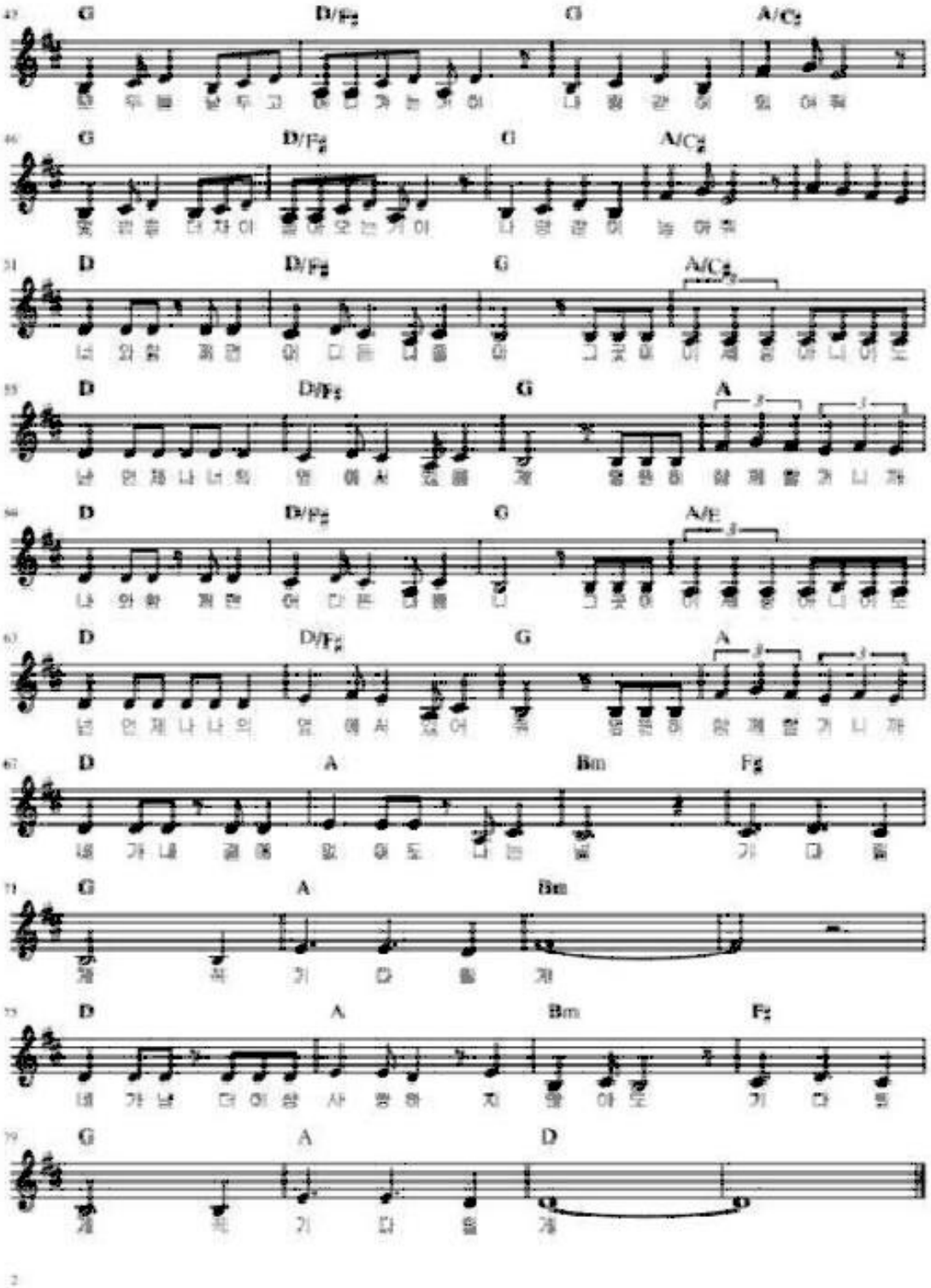
모피착취-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동물공장
모피착취-유기되는 동물-동물공장-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동물학대

유기되는 동물-동물학대-모피착취 2
유기되는 동물-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동물공장
유기되는 동물-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원-모피착취
유기되는 동물-동물공장-모피착취
유기되는 동물-동물공장-동물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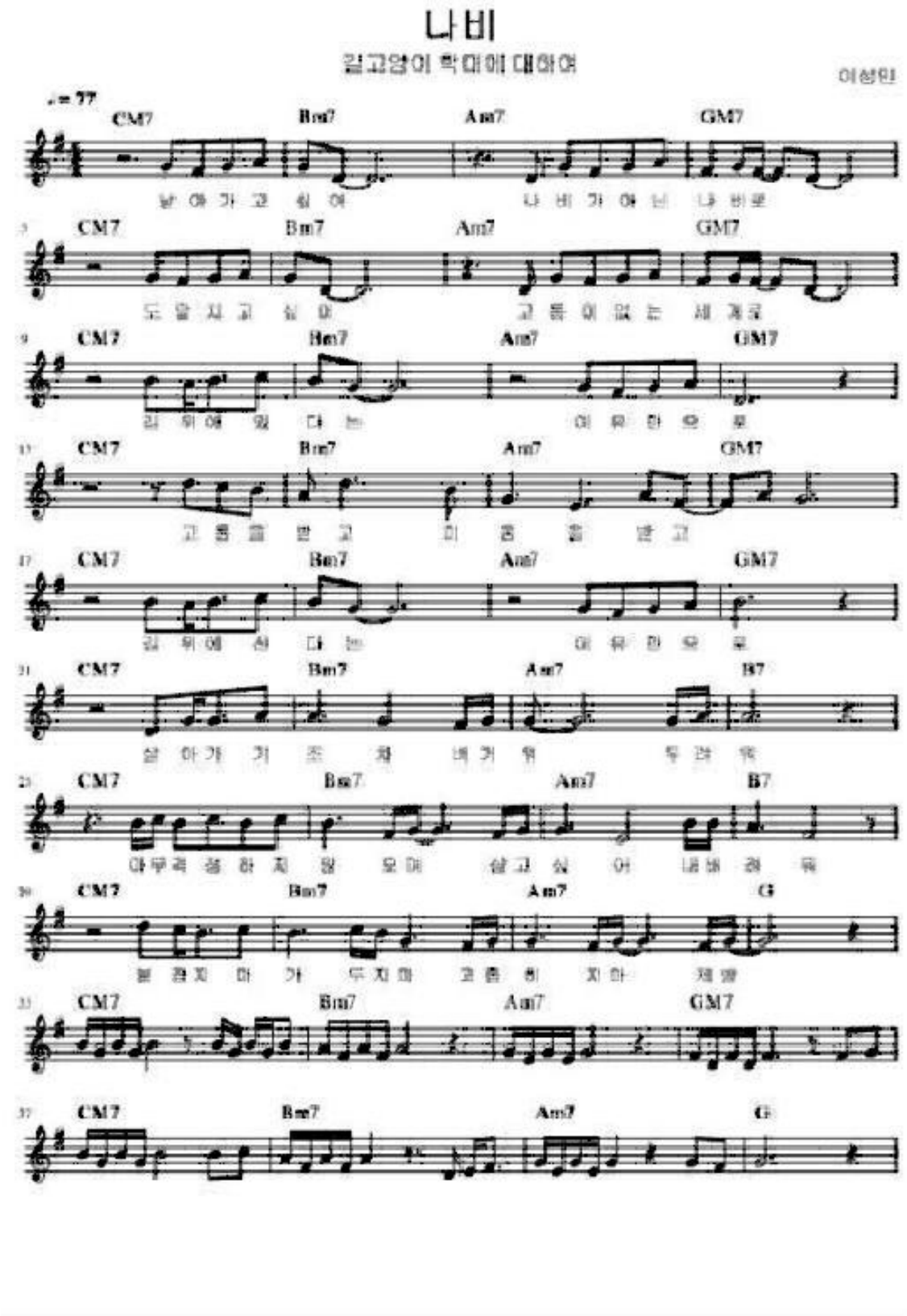
2. 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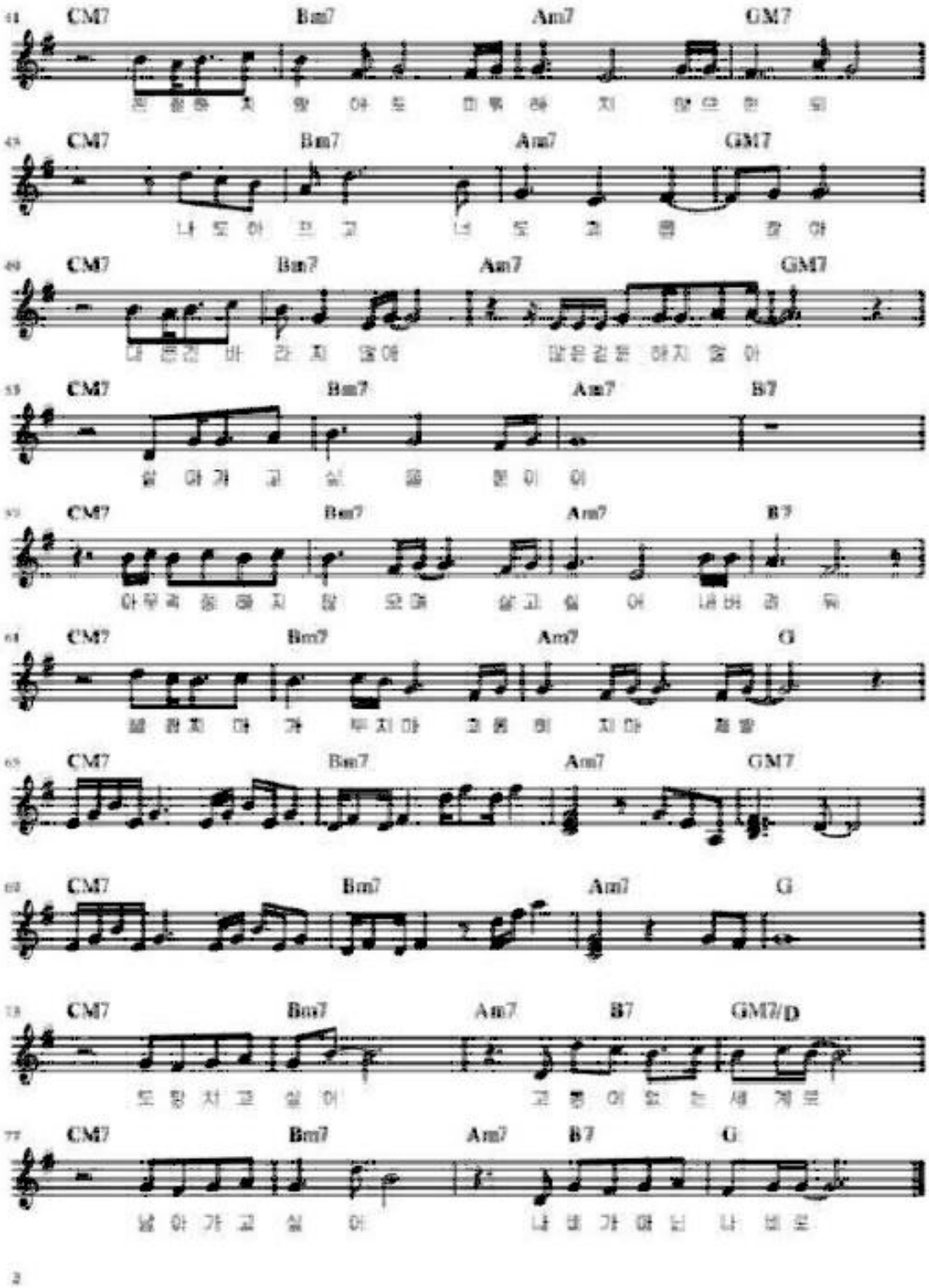
1) 너라면 기다릴게





2) 나비


나비
길고양이 학대에 대하여
이성민
♩= 77
CM7 Bm7 Am7 GM7
CM7 Bm7 Am7 GM7
CM7 Bm7 Am7 GM7
CM7 Bm7 Am7 GM7
CM7 Bm7 Am7 GM7
CM7 Bm7 Am7 B7
CM7 Bm7 Am7 B7
CM7 Bm7 Am7 G
CM7 Bm7 Am7 GM7
CM7 Bm7 Am7 G


41 CM7 Bm7 Am7 GM7
45 CM7 Bm7 Am7 GM7
49 CM7 Bm7 Am7 GM7
53 CM7 Bm7 Am7 B7
57 CM7 Bm7 Am7 B7
61 CM7 Bm7 Am7 G
65 CM7 Bm7 Am7 GM7
69 CM7 Bm7 Am7 G
73 CM7 Bm7 Am7 B7 GM7/D
77 CM7 Bm7 Am7 B7 G

3. 일지

2018년 4월 9일
오늘 계획서를 써봤다. 아직 문어체가 익숙한지 자꾸만 독후감 느낌이 드는 글이 써진다. 계획서를 써보니 그래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다. 아직 진행과정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동기와 목적은 다 썼다.

2018년 4월 10일
계획서를 고쳐보겠다고 하고 내 계획서엔 손도 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올린 계획서는 모두 다운받아 읽어봤다. 숙제가 다른 15명 계획서 모두에 댓글(코멘트)을 달아주는 것인데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

2018년 4월 15일
계획서를 수정해서 진행계획까지 작성했다. 아빠, 언니, 엄마의 피드백도 받았다. 사진, 글, 노래 중에서 어떤 것이 주가 되는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또 프로젝트인지 작품인지도 헷갈리고... 수정한 계획서를 올렸더니 정호쌤의 피드백이 달렸다. 문제의식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잘된 것이며 단순한 사고에서 그치지 않고 논문을 진행하며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다. 어렵다. 장기 프로젝트라서 당장 해야 할일을 잘 모르겠다.

2018년 4월 22일
어제 계획서 발표 ppt를 다 만들었다. AM 3:30 분에 잤다. 정말 ㅜㅐ리 무척 피곤하다. 다 해서 뿌듯하긴 한데 괜히 오늘 다 만든 것 같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하하핳하핳

2018년 4월 24일
내일이 논문계획서 발표다. 진짜 안 올 것만 같았던 날이 온 것이다. 대본 마무리와 ppt마무리를 하고 내일 아침엔 일찍 학교에 내려가서 밴드연습과 여축연습을 한다. 내일은 열린 수요일인데 꽉 차있다. 진짜 너무 피곤할 것 같다. 내일 논문계획서 발표가 끝나도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일상이 다시 시작된다. 강행군의 끝판왕이랄까.

2018년 4월 25일
논문계획서 발표가 끝났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 하고 싶은게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본문은 지금부터 계속 쓰는 것이라는 얘기까지. 어제 새벽 3시 50분까지 대본을 쓰다 잔 의미도 없이 발표를 못한 것 같다. 당황해서 대본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ppt 읽었다. 많이 후회된다. 질문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조금 더 당당해도 될 것 같다. 앞으로 중간발표와 최종 발표가 남았으니 기회는 많을 것이다. 파이팅

2018년 4월 26일
설문지를 만들었다. 일단 학교에서 돌릴 학생용 설문지를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설문지를 만드려니까 머리가 아프고 복잡했다. 문항수와 소요시간까지 넣었다. 이렇게 정성껏 설문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원래 카페에 오늘까지 올리는 건데 내일 아침 일찍 올려야겠다. 이제 교사용과 웹에 올릴 학부모 용을 만들면 된다.

(*논문 주제 수정: ~~내가 만든 앨범을 통해 간디인의 동물권 이해도 높~~어커 간디인의 동물권 이해도 높이기)

2018년 5월 3일
어제 창기오빠가 인턴을 하고 있는 '진저티 프로젝트'에서 특강을 해주셨다. <고등학자>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한 얘기를 해주셨고, 창기오빠는 "논문을 재미있게 쓰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사실 다 알고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아, 맞다. 나는 논문을 써야하지.' 와 '역시 저것들은 중요하구나.' 등의 생각이 들며 새삼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작품논문이 갖춰야 하는 형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생각보다 골치 아픈 것들이 많다.
아 참. 설문지는 객관식인데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은 보기 개수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여야 한다고 한다. 수정 필요하다.
상현쌤에게 논문 피드백 받은 것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시간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상현쌤이 안 주신다.
요즘 타대안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많은 숙제를 하느라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논문은 약 5달도 남지 않았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지만 그 진행의 시작을 조금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파이팅파이팅.

2018년 5월 8일
오늘은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에서 홈 레코딩과 동물에 관한 책을 읽었다. 거의 하루 종일 읽지 않았을까. 동물권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할지 막막했었는데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특히 홈 레코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큐베이스를 설치해서 실행시켜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했다. 동물권만 공부할 게 아니라 큐베이스 사용법도 홈 레코딩법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가끔 이렇게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2018년 5월 18일
10일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 8일에 책을 빌려놓고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그냥 넋을 놓고 있었다. 그래도 어제부터는 다시 설문지를 만들고 있다. 설문지를 만들다가 '애완'과 '반려'의 차이에 대해 찾아봤는데 고민거리가 생겼다. 그 단어의 차이에 대해 크게 두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애완'은 놀다 버리는 의미로 '반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는 입장, 또 하나는 "단어를 다르게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나누어도 실상은 반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되게 어려운 말로 쓰여 있었는데 나는 굳이 바꿔부르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였고 나의 생각과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었다. 설문지의 첫 번째 질문이기도하다. "당신은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중 어떤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설문지는 엄청난 고민 끝에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2018년 5월 23일
학생, 교사 사전설문지 다 만들었다! 설문지만 일주일을 넘게 만든 것 같다. 아직도 완벽하진 않은 것 같다. 고쳐야 할 게 많지만 일단 이 정도에서 만족하려 한다. 내일 설문지를 돌리고 통계를 내고 이제 학부모 사전설문지도 만들어야 한다. 아자아자. 아아. 주제를 바꿨다. 피드백의 내용을 '작품'과 '프로젝트' 형식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이해했다. 수요일에 피드백을

받은 것 같으니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서 내린 결론은 <내가 만든 앨범을 통해 간디인의 동물권 이해도 높이기>에서 <간디인의 동물권 이해도 높이기>로 제목을 바꾸려 한다. 프로젝트라는 정체성도 명확해지고 앨범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닌 다른 여러 활동들이 주가 되는 논문을 써보려 한다. 와아

2018년 5월 26일
원래 계획은 수요일까지 설문지를 다 만들고 목요일에 설문을 돌려 주말에 집에 가서 통계를 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요일에 상현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니 사전 인식을 조사하는 방법은 설문지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설문지의 문항이 정확한 자료를 찾기엔 애매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해서 목요일에 설문지 돌리는 것은 포기하고 목요일에 병곤쌤에게도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간단한 피드백을 주셨다. 상현쌤의 말에 대혼란이 왔다. 내가 '설문지'를 돌려야 하는 이유가 사라졌다. 나의 일주일도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이다. 설문지 말고도 답이 있는 테스트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는 상현쌤의 말씀과 양은 적겠지만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인터뷰의 방법을 제안해주신 병곤쌤. 혼란을 안고 집으로 갔다. 아빠는 설문이든 뭐든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셨다. 사전인식 조사를 하고 큰 활동 없이 방학이기 때문에 그 후 인식조사와 시기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다.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말 같았다.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 후에 묻고 싶은 것들에 대해 확신이 생기면 그 때 사전인식조사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 하셨다. 순간 안심이 되면서도 이번학기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아아. 어렵고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설문이 되었든 테스트가 되었든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려 한다.

2018년 6월 1일
오늘은 집에 가는 날. 설문지를 돌렸다. 사실 어제 돌리려고 했는데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도난 스탑회의를 하는 바람에 오늘 돌리게 되었다. 설문을 할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만든 설문이 아까워서 돌려보기로 했다. 결과가 유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들고 피드백까지 받은 김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통계를 내야한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반 분위기를 보니 조금 어렵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다. 일단 설문 통계를 낸 후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봐야겠다. 아아, 쌤들한테는 못 돌렸다. 우선 학생들만!

2018년 6월 30일
결국 무빙 때는 아무것도 안 했다. 가사를 쓸 생각이었는데 D-DAY만 세어 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설문지 통계를 모두 내고 나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 설문지를 정리하면서 결점들이 보였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설문지 대충한 사람 너무 짜증난다. 반말하고, 낙서하고, 안 적고... 너무 화가 났다. 나는 진짜 우리 학교에서 설문지 돌리면 완전 열심히 할 거다. 덕분에 정성껏 써준 사람에게 두 배로 감동했다. 논문 화이팅이라고 써주고, 완전 자세하게 답 해주고... 눈물이 났다. 엉엉. 설문지 통계는 냈는데 이걸 어떻게 써 먹을지 모르겠다. 6학년이랑 쌤들도 설문해야 하고, 그전에 설문지 수정도 해야 하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더 깊이 알려줘야 할지, 아예 모르던 주제를 새롭게 알려줘야 할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자주 생각하진 않는 주제를 다시 떠오르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게 귀찮고 무기력하고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논

문 발표일은 다가오고 나는 무력에 다가간다.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뭘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힘내자... 먼저 설문지 수정하고 본문을 써 봐야겠다. 가만히 있는 것 보단 뭐라도 해보는 게 좋다고 했다. 책도 읽어야지....^^

2018년 7월 7일
7월 5일에 처음으로 본문을 썼다. 쓸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날 논문 때문에 모인다고 해서 본문을 써 봤다. 뭐라도 해야할 것 같았기에.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 슬펐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것 들. 웹서핑을 해 보니 꽤나 많은 자료들이 나왔다. '카라'라는 새로운 단체도 알게되었고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청소년 세미나도 발견했다. 마하트마 간디의 동물 존중에 대한 명언도 찾았고 정말 조금이지만 본론의 첫번째 주제 '동물권'에 대해서 조금 쓰기도 했다. 같이 모여서 브리핑을 하고 정호쌤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친구들은 생각보다 논문을 많이 썼더라. 위기감이 들었다. 자극을 받기도 했고. 방학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했는데 나는 방학때 동아리 연수도 약 2주가 잡혀있고 미국에 3주동안 가 있기 때문에 남은시간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할 것 같다. 이제 나머지 6학년과 쌤들에게 설문지를 어떻게 돌릴지 생각해 봐야 한다. 기존에 돌렸던 설문지를 그대로 돌릴지 아예새로운 설문지를 다시 전체에게 돌릴지. 솔직히 후자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을 것 같다. 정호쌤은 기존 동물권 단체의 설문지를 참고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찾아보니 잘 나오지 않았다. 반려동물에 관한 설문은 대부분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설문이었고 내 논문과는 큰 연관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설문지를 조금 수정해(내용은 건들이지 않고) 돌릴 생각을 하고 있다. 카라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세미나는 20명만 받는 세미나다. 그래서 일단 신청해 놓았다. 그 다음날 바로 미국을 가기 때문에 무리일 수 있지만 미국 가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논문을 너무 놓고 있었던 것 같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확한 계획을 잡고 방학 계획도 세우고 내 논문의 목적은 무엇이고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지도 잘 생각해봐야겠다.

2018년 7월 10일
짬짬이 남는 시간마다 논문을 쓰고 있다. 어젠 앨범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어 CD 디자인, 인쇄를 알아봤다. 케이스까지 컬러로 뽑으면 생각보다 돈이 꽤 나가는 것 같았다. 오늘도 찾아보려 했는데 연우가 그냥 집에서 인쇄해서 붙이는 게 훨씬 쉽고 돈도 굳는다고 해서 CD디자인 프로그램인 '폼텍 디자인 프로 9'을 설치했다. CD에 들어갈 내용도 없고 앨범을 만들지 말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뭔가를 했다는 뿌듯함이 있다. 사실 지금 해야 할 건 이게 아니고 6학년과 쌤들에게 돌릴 설문지를 수정하는 것이다. 오늘 설문지를 다 수정하고 내일 돌릴 것이다. 아자.

2018년 7월 12일
가족회의를 했다. 또 삼식이 얘기를 했다. 저번 주 가족회의부터 진짜 진지하고 동물권을 주제로 논문을 쓰는 내가 뭐라 한 마디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나 스스로도 정보가 부족하고 확신이나 주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듣고 손을 들려고 했지만 결국 발언은 하지 못했다. 성현언니로 시작된 삼식이 케어 모임이 등장했다. 가만히 있는 건 논문과 맞지 않는 모순인 것 같았다. 모임에 들어갔다. 그 모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내 논문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논문이라는 이유 말고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

물에 대해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줄 몰랐다. 논문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 6학년과 쌤들에게 수정한 설문지를 돌렸다. 드디어.

2018년 7월 24일
거의 2주 만에 논문일지를 쓴다. 7일에 신청했던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진행하는 '틴카라'교육은 19일에 결과 발표가 났다. 합격!! 예에!! 1시가 넘도록 아무런 공지나 연락이 없어 카라 쪽으로 전화를 드렸었다. 그랬더니 합격 되신 분들한테는 메일로 연락을 했고 메일이 오지 않았다면 아마 안 되신 걸 거라는 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1시에 메일을 확인 했었을 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울한 마음으로 메일을 확인해봤더니 글쎄 메일이 와있었다! 암튼 틴카라는 25일 내일부터 시작이고 두근두근하다.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그렇게 막 떨리진 않는 것 같다. 오늘 6학년과 쌤들한테 돌린 설문지 통계를 다 냈다. 합치는 건 나중으로 미루자... 쥬글땃

2018년 7월 25일
두근두근 틴카라 첫날! 10시 5분 버스를 타고 아빠와 서울로 출발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수업을 듣는다는 게. 아트박스와 다이소에서 선글라스를 살펴봤지만 살만한 물건은 없었다. 강남에서 망원으로 지하철을 통해 이동했다. 망원에서 점심을 먹기로 해서 틴카라 교육장소 근처(카라 근처)에서 아빠와 쌀국수를 먹었다. 사실 이 때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정호쌤이 소개해 주신 '동물해방물결'이라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비육식 캠페인에 참여(SNS에 채식을 하자는 게시물 공유)했는데 쌀국수에 들어가는 소고기를 먹었다. 자괴감 들고 괴로워... 40분이 되고 카라 건물로 이동해 나는 교육장소로 들어가고 아빠는 나를 기다리기로 했다. 내가 들어갔을 땐 4분정도가 와 있었고 나와 거의 동시에 들어가신 분이 한분 계셨다. 다들 빨리 왔다. 어색함이 흐르고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다. 활동가 분들 목소리가 정말 크다. 다들 자주색 카라 단체티를 입고 있다. 하나둘씩 모이고 원래 뽑는 학생수가 20명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교육받는 학생들은 19명이라고 하셨다. 이번 틴카라를 주로 담당하시는 간현임활동가님의 소개가 있고 어떤 편한 복장의 여성분이 자리에 앉으셨다. 카라 대표이시란다. 나는 의아했다. 내가 생각했던 대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영화감독 임순례 대표님이라는 소개가 있고 대표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혹시 제 영화 본 사람있나요?(-나는 어떤 감독님인지 몰라 손을 들지 않았다. 번쩍번쩍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그 세대가 아니라 모르려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감독이고 최근엔 <제보자>, <리틀포레스트>등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리틀포레스트라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그렇게 유명한 감독님이셨다니.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그렇게 유명한 분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리틀포레스트라면 류준열을 만난 분을 내가 지금 직접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갑자기 뭔가 와아 싶었다. 감독님이 어떻게 카라 대표를 맡게 되었는지 듣고, 감독님과 동물의 관계를 담은 지식채널e 영상을 보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와... 진짜 장난아니다. 보통 우리학교에서 강의 끝나고 질문하라고 하면 2~3개 나올까 말까다. 질문하라고 하자마자 바로 손을 드셨다. 한명이 아닌 여러명이. 들어보니 다들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많더라. 학교 동물동아리에서 혹은 개인이 캣맘활동을 하기도 하고 채식을 하는 중인 분들도 계셨다. 이어서 자기소개도 했는데 수의사를 준비중인 분들이 꽤 많았고 이미 다른 단체에서 봉사나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정말 많았다. 나는 틴카라가 처음이고 하고 있는 활동도 없는데... 많이 위축된 것 같다. 아 중학생도 나까지 3명밖에 없다. 한가

지더 남자도 3명밖에 없다. 크크 레크레이션처럼 서로의 향을 맡으며 같은 향끼리 팀을 꾸리고 보드게임을 했다. 먼저 다가가기 쉽지 않다ㅠ 대안학교 다니는 오빠도 있었다. 고3인데 자퇴하고 작년에 신설된 대안학교를 다닌단다. 교육이 끝나고는(예정보다 30분 늦게 끝났다.) 활동가 분께 금요일쯤에 인터뷰를 할 수 있냐고 여쭤봤다. 어떤 인터뷰를 할거냐 그래서 정확히 말은 못하고 질문지를 짜 올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럼 질문지를 미리 메일로 보내주면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적합할지 판단하고 인터뷰를 하면 될 것 같다 고 하셨다. 그럼 최소한 내일까지는 보내야하고 그럼 오늘 인터뷰 질문을 짜야한다. 갑자기 막막해졌다. 무기력해졌다. 아빠를 만나고 할머니 집으로 왔다. 와서 닭죽을 먹었다. 자괴감이 들었다. 인터뷰 질문을 짜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가 이 인터뷰를 왜 하는지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질문을 짜려니 앞이 캄캄했다. 아빠, 엄마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현쌤한테도 연락하면서 막 썼다. 11시 30분쯤에 상현쌤과 통화를 했는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무엇을 위한 인터뷰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또 현재 논문의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보셨다. 오늘의 논문 제목은 <간디인에게 사회적 동물문제 상기시키기 :반려동물을 중점으로>이다. 논문 제목은 계속 바뀌는 거라 하셨고 바뀔 때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두라고 하셨다. 상현쌤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인터뷰를 내일 가기 전에 보내고 싶은데 지금은 자야겠다.

2018년 7월 26일

어제의 내가 미뤄두고 간 인터뷰 질문 짜기. 아침부터 했다. 질문지를 짜려고 보니 1~5학년 설문 결과와 6학년+쌤들의 설문 결과를 합쳐야 할 것 같아 설문 결과를 정리했다. 사실 인터뷰 질문 짜는 게 막막해서 회피하는 이유도 있었다. 결국 질문지는 메일로 보내지 못했고 설문 결과만 다 정리하고 집을 나섰다. 참, 한심하다. 오늘 주제는 길고양이와 농장동물이었다. 길고양이에서는 삼육대학교 학생이 동행길(동물과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동아리를 통해 길고양이데 대한 강의를 해 주셨다. 다리가 불편해 보이셨는데 되게 예쁘셨다. 엄청 열정이 대단한 분이셨다. 혼자서 대학교에 들어가 동아리를 만들고 회장을 맡으며 체계적인 진행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길고양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구나. 싶었다. 하지만 개인이 지속하고 책임지기엔 무리가 있어보였다. 동행길도 카라의 캠퍼스고양이 사업에 도움을 받았고 대학생이라는 점과 동아리라는 집단이라는 점 덕분에 많은 활동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농장동물에서는 동물운동이라는 개념과 공장식축산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카라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지금까지의 강의 중에선 가장 차분했던 강의였다. 아, 비건 케익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다. 생각보다 비건의 맛이 많이 났다. 버터와 생크림을 넣지 않는 게 이렇게 맛을 크게 좌우할지 몰랐다. 공장식축산이 문제인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다.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강의가 끝나고 활동으로는 공장식축산 반대 피켓만들기를 했는데 내가 거의 마지막으로 만들었다. 나는 되게 빅픽처를 그리고 이번엔 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마지막에 급하게 만들다보니 퀄리티가 떨어진 것 같다. 다시 한 번 느낀 것 이지만 틴카라분들은 대단한 것 같다.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한다. 오래본 사람들 앞에서라면 나도 나서서 발표했겠지만 본지 이틀째인 사람들, 말도 안 해 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동물에 대한 열정이 많은 게 아닐까. 원래 비건빵을 만드는 가게에서 빵을 먹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오븐이 고장났다고 해서 우리는 비건 중국집으로 갔다. 되게 신기했다. 비건 중국집이라니. 동물단체가 있어서 근처에 이런 많은 비건가게들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우연일까. 버섯탕수, 가지칠리, 채식짬뽕 모두 다 맛있었다. 마파두부밥도 있었는데 그거 먹을 걸 그랬

다. 짬뽕은 너무 더웠다. 밥을 다 먹고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은 언니들이랑 근처 카페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다 가기로 했다. 다들 지옥철을 피하자는 생각으로! 공주님 정말 친화력 좋으신 것 같다. 식당을 나와 어디 갈지 고민하고 있다가 총 5분과 번호교환을 했다. 알고 보니 성미산학교 언니도 있었다! 뭔가 같은 대안학교 동지를 만난 것 같아 기뻤다. 크크 시내 쪽으로 들어가 카페를 찾아봤는데 다 비싸보이고 체인점엔 사람이 정말 많았다. 이디야에 자리가 없었다ㅠㅠ 그래서 카라 가는 길에 있는 어떤 카페에 들어갔는데 가격도 비싸지 않고 과일주스가 있는 바와 카페사이 같은 공간이었고 분위기가 좋았다. 치즈노래가 계속 나왔다~ 같이 셀카도 찍고 40분정도 수다도 떨면서 꽤 가까워진 것 같다. 친해질 자신이 없던 건 조금 나아졌다.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의욕이 떨어졌다. 멘탈붕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인터뷰가 가능한 것인가. 엄마, 아빠와 전화도 하고 언니에게 큰 도움을 받으며 내 인터뷰의 정체성을 찾았다. 나는 인터뷰를 통해 '카라'라는 단체나 현재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싶기 보단 내 논문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은 것이다. 나는 간디인을 대상으로 동물권, 사회적인 동물문제를 알리는 것이고 카라도 이와같은 활동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 경험을 듣는 질문이 많다. 또 창작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넣어야하고 어떤 내용은 조심해야하는지, 설문지에 대한 질문도 있다. 삼식이에 관한 질문도 있는데 질문지에는 넣지 않았고 인터뷰 할 때 여쭤볼 예정이다. 맨 처음엔 학교소개, 논문 목적 등을 정말 구구절절 설명했다. 질문지를 완성하고 3시다. 메일 보내는 건 내일 아침에 할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아침에 일어나서 질문지를 조금 고치고 10시쯤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도 조금 설명을 하고 늦게 보내 죄송하지만 오늘 오후에 할 수 있는지 여쭤보았다. 곧 문자가 왔고 오늘 당장은 어렵고 질문지 보고 상의한 후 내일이나 다음 주가 어떠냐고 하셨다. 오늘은 서울대입구에서 모였다. 서울시 야생동물 보호센터가 서울대 입구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2시까지 모이는 건데 1시 20분에 도착해버렸다. 근데 한 두세 명 정도 와 있었다. 다들 지하철 출구가 아니고 밖에서 들어오며 모였다크크. 가장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해도 항상 누가 먼저 있더라. 틴카라에서 시간에 늦는 사람은 많이 없었다. 야생동물 보호센터는 기대 이상이었다. 야생동물에 관심도 없었고 내 논문 범위 안에 포함 시키지도 않았다. 내가 가장 도움 받지 못할 만한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도움과는 별개로 정말 재밌었다. 실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현장은 그닥 재밌지 않았다. 그저 좁고 동물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정말 흥미롭게 보고 별거 아닌 것도 사진을 찍고 막 눈빛이 달라졌다.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 것 같다. 아, 이 사람들은 장래희망에 더 다가가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지. 거리감을 느꼈다. 현장견학?을 끝내곤 센터에 대한 설명과 어떤 야생동물이 주로 오고, 어디가 많이 다치는지 강의해주셨다. 알고 보니 그 센터는 서울대 위탁? 소속? 이었다. 그래서 서울대 볼펜과 샤프도 받았다 크크. 아 성미산학교 다녔던 유라라는 고2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와 옆자리에 앉게 되어 대화도 나눴다. 강의는 그저 그랬다. 아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 강의가 끝났고 어제 식당에서 적었던 포스트잇 질문지를 통해 QnA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진짜 재밌었다. 엄청 성의 것 답해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말씀하셨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이런 말해도 되나?"하면서 다 말씀하시고 인간미가 느껴지는 말투였다 크크. 서울에도 야생동물이 있었고 잘못 구조해서 납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다. 별다른 일정 없이 오늘 수업은 끝났다. 내일 오전 10시에 인터뷰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2018년 7월 28일

8시 50분에 집에서 출발했다. 10시까지 카라센터 앞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인터뷰 인터뷰! 망원역에 너무 일찍 도착해서 올리브영에서 10분정도 시간을 보내고 카라로 걸어갔는데 도중에 간현임활동가님과 만나서 그대로 인터뷰 장소인 3층 '킁킁도서관'에 들어갔다. 킁킁도서관은 길고양이었던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 도서관이다. 동물에 관련된 논문을 모아두거나 자료들도 꽤 많이 있어 설문지를 참고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이리활동가님과 꿀벌(간현임)활동가님과 진행했다. 나는 정보나 지식을 얻으러 갔다기 보단, 논문에 대한 조언이나 카라에서 한 활동중에 추천해 줄 만한 활동을 알고 싶은 게 더 컸다. 하지만 동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혹은 동물권에 대해 알린다는 게 상황마다 다르고 대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무언가를 얻진 못한 것 같다. 그냥 "미르(틴카라에서의 내 이름)님이 더 잘 아실거에요.", "진행하면서 더 고민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이런 식의 답변이었다. 인터뷰 후 뭔가 알겠다거나 후련한 느낌은 받지 못했다. 그냥 현실을 한 번 더 직시하게 해 주었다. 내 논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해야 하는구나.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나는 논문 대신 써줄 사람을 찾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처음 인터뷰 하려고 했을 때도 인터뷰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은 체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인터뷰는 분명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내가 그걸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다. 1시간 반을 예상했지만 인터뷰는 1시간도 되지 않아 끝나버렸고 11시엔 1층 아름품에 갔다. 아름품은 카라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입양센터이다. 들어가려고 문을 살짝 당기자마자 안에 있던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 정말 당황스러웠고 조금 무서웠다. 곧 안에 계신 아름품 활동가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셨고 조금 무서웠다. 일어서면 아이들이 흥분해서 앉아만 있어야 했고, 사진도 조심히 찍어야 했다. 아이들은 유기견이라 다른 펫카페의 길들여진 아이들과는 달랐다. 다가올 때 까지 기다려야 했고, 겁이 많은 아이도 있었다. 쓰다듬기가 참 어려웠다. 아름품에는 나보다 먼저 꼬마보안관님이 계셨는데 어제 아름품에 간다고 하셔서 같이 있으면 되겠네요 했지만 공주님과 집회에 간다고 했는데 아름품에 계셨다. 역시 친해지기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아름품에서 두시간 정도 (생각해 보니 엄청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 보고 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1시쯤에는 혜온님을 만나서 다시 킁킁 도서관에 갔고 또 30분 쯤 스톤님도 만나서 편의점에 가서 점심을 사들고 먹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었고 다시 재판하기 등의 토론 수업을 진행했다. 다들 정말 열정이 넘쳤다. 나도 학교에서 토론하면 가만히 있거나 아무말도 안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 이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말 시작하자마자 진행자가 되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말하고 말하지 못해 안달 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또 말을 하고 말을 하고... 나는 겨우 한 마디 했다. 마지막 날 까지 모두가 대단해 보였다. 내가 사람을 가린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느꼈다. 수업이 끝나곤 다시 킁킁도서관으로 이동했다. 세 번째다크크. 수료식을 진행했다. 나를 정리해요 라는 걸 적었고 틴카라 티도 받고, 여러 자료집들과 USB, 배찌도 받았다. 그렇게 4일 동안의 틴카라는 끝이 났다. 생각보다 너무 짧았다.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고 이제 내가 논문으로 해야 할 활동을 직접 찾아 해야하기 때문에 막막해졌다. 파이팅. 아빠가 책을 사다주셨다. 감사하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과 인터뷰 중 이리님이 추천해주신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이다. 두 책 모두 르포 쪽 이고 나름 재밌을 것 같다. 오늘은 생리통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있어서 읽어보진 못했다. 내일은 미국에 간다. 이제 미국에서 정말 정신차리고 논문 써야한다.

2018년 8월 10일
지금 미국은 8월 10일 새벽 2시쯤.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논문일지를 쓴다.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을 읽고 있다. 오늘은 본문을 썼다. 주제가 조금 바뀌어서 서론을 다시 써야한다... 논문의 목적과 계획이 바뀌었다. 서론은 그냥 계획서에 쓴 대로 쓰려고 했는데...ㅠㅠ 내일은 책의 남은 80p 정도를 더 읽고 서론을 고치고 곡 구상을 할 예정이다. 책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작가 개인의 주장을 여러 인용으로 뒷받침 하고 있어 신뢰가 간다. 무엇보다 기사 댓글을 보고 개 식용에 관해 혼란스러웠던 게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역시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었다. 인용되어있는 자료도 많아서 이 책으로 또 다른 자료를 줄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018년 8월 11일
책을 다 읽었다. 혹시나 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개고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라고 물어봤다. 너무 순진한 질문이었다. 알고보니 할머니는 꾸준히 개고기를 드시던 분이었고 심지어 올해 복날에도 드셨단다. 적잖이 충격이었다. 책에서 나온 오해들을 할머니가 하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며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할머니였다. 할머니 뿐만 아니라 할머니쪽 친척들 모두 개고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비해 싸냐고 물었더니 배로 비싸단다. 왜 먹냐고 물었더니 사람이랑 가장 비슷한 음식(본인 입으로 짬밥 같은거 라고 하셨다)을 먹은 고기를 먹는 것이다. 사료먹은 개는 맛이 없다. 집에서 키우는 개랑 먹는 개는 따로 있다.는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모두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생각보다 개고기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고 뭔가 괴리감(?)이 들었다. 곡 구상을 했다. 계획에 4곡을 작곡한다고 했는데 딱 3~4곡 정도 나올 것 같다. 큐베이스 사용을 하기 위해 유튜브 강좌를 찾아봤는데 너무 어렵다. 큐베이스 다루는 일은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고 일단 구상한 곡의 멜로디와 코드를 짜야겠다. 또 본문에 들어갈 자료와 ‘길고양이 학대’ 곡의 모티브가 될 사건을 찾아봐야 한다. 4가지 정도로 추린 곡의 주제는 이렇게 나뉜다. 개 공장에서 개 농장 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곡. 공장처럼 딱딱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 반복적인 멜로디, 단순한 멜로디를 사용하려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한 노래. 두 번째는 유기동물의 이야기를 담은 곡. 개 뿐만아니라 다양한 유기동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밝은 분위기로 가고 싶다. 주인과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하며 마지막엔 “하지만 여기 이 풀밭엔 나 혼자 우두커니”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 당장 생각난 가제는 <마지막 산책>. 세 번째는 길고양이 학대이다. 동물학대중에 가장 눈에 띄고 가장 흔한게 길고양이 학대라고 생각한다. 쉽게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사건을 모티브로 작곡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고민중인데 정말 캠페인송 같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하는지 알기 쉽게 중독적인 멜로디, 코드를 사용한 뭐 그런 곡. 내가 좋아하는 풍은 아니지만 나의 이런 행동들이 감정호소만으로 끝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일은 개 공장, 개 농장 가사를 쓰고 멜로디까지 써보려 한다. 본문 수정과 연구 방법을 작품으로 바꿀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2018년 8월 12일
오늘은 강아지공장과 개농장의 노래 가사를 다 적었다. 생각나는 부분 부분을 그냥 멋대로 끄적이고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뽑아 1절 후렴 이런 식으로 형식을 만들었다. 이 노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가사를 쓰는 것에 그렇게 부담이 없었던 것 같

다. 조금씩만 다르게 하고 계속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코드 진행도 몇 개 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피아노로 치는 것과 다른 악기들로 치는 것은 확실히 다른 느낌일 텐데 일단 지금은 피아노 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풍의 진행이 되는 것 같다. 노래의 가제는 '꿈(Dream)'이다. 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중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뭐 어디까지나 가제일 뿐이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큐베이스 강좌영상을 봤는데 어렵고 그 영상에서 한 대로 나는 잘 되지 않았다. 가상악기가 없다거나... 그래서 다운받아야 한다. 내일은 코드 진행을 더 해보고 정하고 멜로디까지 넣는 게 목표다. 아자.

Vers.1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
잠들기는 했었나
다른 이들의 비명에 눈을 떠
귀를 막고 싶어

무얼 먹고 있는지, 어딜 보고 있는지
여긴 어디인지, 나는 누구인지

태어난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별이 된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
다시 이 자리겠지

Hook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꿈이었으면
오오 제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세요
편히 잠들 수조차 없는 이 좁은 감옥
내 세상의 전부에서

Vers.2
저들의 앞날을 알고있어
나도 겪었던 일
나의 앞날도 알고있어
내 앞의 저들이 아닐까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늘을 보고 싶어
아늑한 집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줘

태어난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별이 된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
다시 이 자리겠지

Hook=

살아가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꿈을 꾸고 싶어

2018년 8월 20일
이제 한국이다. 18일에 입국했다. 하아... 일단 '가제: 마지막 산책' 1절 멜로디와 가사를 완성했다. 피아노 앞에 앉아도 아무런 생각이 날 것 같지 않아 책상 앞에 앉아 멜로디와 가사를 그냥 되는데로 생각했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뭔가 이진아 노래 느낌이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풍인데 발랄하게 하려다보니 내 목소리랑 합쳐지면서 엄청 막 그런 느낌... '산책'이라는 단어가 강아지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제목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중이다. 고양이들은 산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반려동물(토끼, 햄스터, 고슴도치 등)은 산책을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

Vers.1
따사로운 햇볕
그 사이로 보이는 너
포근한 너의 품
내 눈동자 속 너

새들은 지저귀고
바람은 내 코를 간질여
한발 두발 내 딛으면
즐거워~

자 눈을 감고 달려봐
나만 믿으면 되
Hook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갈까 너만 있다면 다 좋아
내가 앞장 설게

카라 인터뷰 진행할 때 동물을 의인화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뭔가 의인화 시키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발랄함 속에 뭔가 불안함 그런 게 잘 담기지 않은 것 같다.

2018년 8월 21일
도서관에 갔다. 4시간 정도 있었는데 밥도 먹고 딴 짓도 하다 2시간 정도 밖에 안 쓴 것 같다. 서론에 연구 목적을 썼고, 본론의 동물권을 쓰고 있다. 아름품과 킁킁도서관에서 찍은 사진을 정리했다. 정리 해 보니 20장 조금 안되게 나오는 것 같다. 집에서 별이를 촬영할 생각이다. 고양이 사진에 비해 개 사진이 많아서 학교가면 길고양이 사진을 찍고 필름카메라로 찍었던 사진들 한 번 확인 해 봐야겠다.

2018년 8월 22일
원래 오늘은 도서관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서관에 갔다. ~~어제야~~ 카라 인터뷰 녹취를 풀고 있고 본문을 좀 쓰다가 다시 가상악기를 설치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했다. 작곡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여전히 한 게 없다. 개식용 관련 영상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마지막 산책'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 영상은 산책 가는 줄로만 알았던 강아지가 목줄이 위로 당겨지며 도살되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내가 생각했던 곡의 제목과 똑같아서 되게 신기했다.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영상이길 바랬지만 아쉽게도 1분 남짓한 영상이라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한 것 같다.

2018년 8월 23일
이젠 정말 최종발표까지 딱 두달 남았다. 슬슬 중간발표를 준비해야하는 걸까..ㅠ 오늘은 별이를 마당에 풀어주고 사진을 찍었다. 논문을 진행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별이에게 더 많은 애정을 주면서 더 친해진 것 같다는 것이다. 아직도 미안한 게 많지만 장난도 치며 재밌게 놀았다. 원래 다시 묶는게 힘든데 웬일인지 나한테 순순히 목을 내주어서 정말 대견하고 고마웠다. 사진은 흐린 날이라서, 내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았다. 90장 밖에 안찍고 좋은 사진을 기대하는게 너무 기고만장한걸수도 있지만...ㅋㅋ 큐베이스 가상악기 설치까진 성공했는데 큐베이스에서 연결이 안된다... 내가 진짜 큐베이스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너무 과대평가하고... 아빠가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으면서 쉽게 될거라고 생각했냐고 했을 때 진짜 뭔가 아차 싶으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싶었다. 이제 진짜 열심히 하는 것 밖엔 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아빠는 게라지밴드로 하면 더 쉽지 않겠냐며 아이패드를 사줄지 물어봤지만 솔직히 말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런 걸로 돈 쓰고 싶지도 않다. 게라지 밴드로 내가 생각하는 퀄리티의 곡이 나올지도 모르겠고(사실 어떤 시퀀서를 쓰던지 내 실력의 문제지만)...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들인데 내가 정말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팍팍 들어난다. 학교 들어가기 전 까지 작곡을 할 수 있는 데 까지 다 하고 학교 들어가선

곡 만드는 작업에 열중해야 할 것 같다. 본문을 쓰고 있다. 어떤걸 써야할진 알겠는데 정말 쓰고 싶지 않은게 본문이다. 이것도 내가 너무 우습게 봤다.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를 절절히 느끼겠다. 나한테 자료나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쉽게 안써지는 것 같다. 연우가 작곡을 하기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글 쓸 여유나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내가 곡을 통해 뭘 전달하고 싶은지를 그냥 간단하게 적는 것이 아닌 글로 정리해 놓으면 곡이 좀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본문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아자아자가 아닌, 정신 차리자로 마무리 하자.

2018년 8월 24일
스튜디오 원을 깔았다. 엄청 오래 걸려서 겨우겨우 설치했다. 설치하는데만 너무 오래걸려서 아직 실행시켜보진 않았다. 가상악기도 무료로 다 내장되어있어서 엄청 좋은 것 같다. 주현이가 추천해줬는데 정말 고맙다. 내가 방학이 끝나가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정말 한심하다. 방학때 다 작곡해놓고 개학하고나선 학교에서 레코딩만 해야했었는데 작곡을 반도 못했다. 아빠가 아이패드를 사주신다고 한다. 애플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게라지 밴드'는 큐베이스처럼 영어가 아닌 한국어가 지원되고 훨씬 쉬운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27일
강아지 공장과 개 농장에 관한 노래 가사를 수정중이다. 내가 원하는 느낌이 많이 안 나서 단순한 멜로디로 바꾸려 한다. 그리고 '귀를 막고 싶어'라는 가사가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걸렸었다. 1절은 강아지 공장의 개들, 2절은 개 농장의 개들 모습을 담는다. 후렴은 원래 써놨던 가사로 한다. 가사를 쓰면서 생각해봤다. 가사로 많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길어지게 되고 가사가 아닌 글의 느낌이 드는 것 같다. 수정한 가사를 흥얼거리며 멜로디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3번째 노래인 길고양이 학대에 대한 노래는 원래 한 사건을 모티브로 다루려 했는데, 검색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사건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2018년 8월 28일
연우와 이야기를 해 봤다. 어떤 프로그램을 쓰며 작곡하는 것이 좋을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생각하고 있었던 게라지밴드는 습작하는 용도이고 높은 퀄리티는 나오기 힘들다는 결론이 났다. 선호쌤의 큐베이스 수업도 듣고, 선호쌤께 큐베이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당당해지기로 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을 숨기지 않아야겠다. 그래야 24시간 오픈마인드로 되먹임 받을 수 있는 것! 내일은 상현쌤과 면담을 하고 선호쌤께 큐베이스를 구하며 조언을 구해봐야겠다. 주현이는 작곡을 다 했고, 규리는 작품이 다 완성 됐고, 다들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나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꿈> 가사 수정
Vers.1
한없이 작아지고 작아지기 위해
목소리를 잃고 잊어버리기 위해

어디로 갔나요 나의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나의 부모님은
네모진 세상 밖 보이는 것들
나와 같은 모습 같은 눈빛
뿐인데

Hook
태어난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별이 된 이들은 어디로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
다시 이 자리겠지
Vers.2
냉장고 속 아이스크림처럼
아픈 나는 모순에 덮혀

검은 벽 너머의 비명소리
지금은 곁에 없는 나의 친구

물을 마시고 하늘을 보고 싶어
아늑한 집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줘

Hook
태어난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별이 된 이들은 어디로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
다시 이 자리겠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꿈이었으면
오오 제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오
편히 잠들 수조차 없는 이 좁은 감옥
내 세상의 전부에서

2018년 8월 29일
민혜쌤을 만났다. 처음에 게라지밴드로 작곡하는 걸 민혜쌤께 여쭤볼 생각으로 갔었다. 하지만 훨씬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논문주제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동물 문제를 알리는 노래 만들기'와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다. 노래로 뭔가를 알리거나 어떤 주제를 담는 것은 프로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바람! 하면 떡하니 바람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 하셨다. 가사가 있다면 조금 괜찮다고 하시긴 했지만. CD까지 만들고 싶다고 하니 일단 작곡을 먼저 하고 프로그램은 그 이후라고 하셨다. 큐베이스를 배우고 싶은 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천천히 배우고 이번 논문의 녹음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이다. 맞는 것 같다. 노래가 없는데 녹음부터 할 수 없으니. 그리고 가사를 쓸 때 라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다. 확 꽂히는 훅(후렴)이 있어야 한다고. 줄줄 내용을 쓴 가사는 좋은 가사가 아니라고 하셨다. 그래서 가사를 수정해야한다. 저번에 말했듯이 나는 가사에 어떤 의미를 담으려다 보니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게 지루한 가사로 이어지는 것 같다.
상현쌤을 만났다. 미리 각오하고 오긴 했지만 참교육 당한 것 같다. 계속 논문의 진행방향만 말하면 백퍼센트 망한다고 하셨다. 뭔가 하고있는 걸 가져와서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셔서 내일은 찍은 사진을 가져와서 만나기로 했다. 상현쌤이 당장 오늘 논문제목 뭐냐고 물어보셨다.
<간디인에게 동물 문제 알리기>

2018년 8월 30일
선호쌤께 큐베이스를 받으러 갔는데 설치파일만 7GB였다. 내 USB엔 5GB밖에 없어서 파일을 많이 지웠다. 결국 오늘도 큐베이스를 받지 못했다. 내일은 집에 가니 정말정말 꼭 받아야 한다. 상현쌤께 카라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다. 내가 B컷(1차 추리기)로 정해놨던 사진이 더 좋다고 하셨다. 약간 마상... 본론의 목차를 보고 맥락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다. 본론의 큰 제목만 보고도 논문의 제목을 알 수 있으면 좋은 목차라고 한다. 틴카라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본문에 넣어야 할지 여쭤봤더니 외부 논문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본문에 넣지 않는다고 한다. 지저분한 소리를 듣는다고. 우리학교 논문은 활동한 내용들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넣으라고 하셨는지 빼라고 하셨는지 까먹었지만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것 같

다. 내 논문이 작품인지 프로젝트인지를 확실히 하라고 하셨다. 작품이 맞는 것 같다. 프로젝트로 진행시키면 나의 결과물을 통한 변화를 자세하게 조사하고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사전 설문지를 돌린 것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외부 논문에서 설문을 하면 10개 중 5개는 '의미 없는 결과'라고 한다. 상현쌤 왈) 결과물을 완성한 후의 인식조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그럴 여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논문의 형식이 작품이라면 프로젝트성은 서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 등의 변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동물 문제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 '동물 문제'만 듣고 연상되는 것은 동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맹견, 소음 등)이기 때문에 논문의 목적과 맞지 않다. 제목은 간결해야 한다고 하셨다. 동물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하다. 결과물을 실물까지 만드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구매해야 한다면 원래 관심있던 사람이 구매하던지 애썼으니 사준다는 식으로 되면 결국 책장에만 꽂혀있을 것이라고, 요즘은 실물로 보는 것 보다 파일로 저장해서 듣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하셨다. 역시 내 욕심이 큰 것 같다. 아빠처럼 상현쌤도 지식채널e 같은 영상을 만들어보는 건 어떻냐는 제안도 하셨다.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찍은 사진의 용도를 달리해야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다. 일단 노래를 완성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실물은 정말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실물이 나와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커버할 계획도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곡을 커버할 생각이면 꼭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일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이 노래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유기견, 헤어진 연인 등으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곡자의 의도가 동물이 아니었더라도 관점을 달리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셨다. 커버할 곡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말고 찾아봐야겠다. 남자 키(Key)인게 걸렸었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문제는 내가 그런 좋은 노래를 찾을 수 있을까...
*내 논문은 작품 형식으로 간디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동물문제가 담긴 노래를 들려준다. 그 노래를 듣고 동물문제에 대해 알게 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논문의 목적.

2018년 8월 31일
큐베이스를 드디어! 설치했다!!! 사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에서 그렇게 까지 필요한 건진 잘 모르겠다. 내가 녹음이나 믹싱을 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있어서 나쁠 건 없다. 가상악기도 엄청 많고(다 사용법을 모르지만) 선호쌤이 준 파일엔 친절한 한글파일 설명서도 있어서 뭔가 안심이 된 달까.내가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mr을 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큰 착각이었다. 그냥 1분짜리 미리듣기를 다운받은거였다... 벅스 노래 다운로드 이용권인 사람을 찾아서 부탁해야한다!

2018년 9월 1일
9월이다. ㄷㄷ 집에 오기 전에 주현이 기타로 코드 두 개를 치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코드 진행을 늘렸다. DM7 - C#7 - Bm7 - AM7 으로 7만 들어가는 뻔한 진행인데 되게 마음에 든다. 멜로디를 붙이기 쉬운 것 같다. 곡의 느낌이 길고양이 학대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걸로 하기로 정했다. 가사를 붙이기 쉽지 않다. 주제가 까다롭기도 하고 멜로디는 엄청 팍팍 떠오르는데 가사가 못 따라간다. 가사는 따로 짜야할 것 같다.

2018년 9월 2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 했는데 결국 늦게 일어나버렸다. 마지막을 A로 끝내는 진행도 좋은 것

같다. 중간 중간 간주부분을 만들었다. 아직 형식을 정하진 않았다. 가사가 없으니 멜로디를 막 정할 수 없는 것 같다. 여튼 가사가 제일 문제다. 생각난 멜로디들은 코맹맹이 허밍으로 폰에 녹음해 두었다. 들으면서 자괴감 들것 같긴 하지만 가사를 끄적이고 멜로디와 맞춰보면 될 것 같다. 코드진행이 너무 쉽게돼서 조금 자신감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악기들이 어떻게 들어가야할지는 전혀 감이 안온다... 벅스 이용자를 생각보다 너무 쉽게 찾았다. 일상다반사 회의를 하다가 뜻밖의이득!! 내일 담오빠에게 부탁할 예정이다. 연우에게 코드진행을 들려주고 다른 악기들을 어떻게 넣어야할지 물어봐야겠다. 가사를 끄적이고 있는 중이다. 생각보다 잘 안나온다. 학대인 만큼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건데 그걸 어떻게 은유나 비유로 풀어낼 수 있을지... 새벽까지 공부방에 있다가 <고기로 태어나서>를 읽었다. 닭, 돼지 부분은 뛰어넘고 개농장 부분부터 읽고 있다.

2018년 9월 3일
벅스로 MR을 받았다. 전산실에서 받는 게 생각보다 오래걸렸다. 연우와 돌집에 가서 즉흥 연주(?)를 해 봤다. 내가 피아노로 코드 진행을 치면 즉석으로 기타를 쳐주고 그거 듣고 또 즉석으로 피아노 치고 뭐 그런식? 엄청 재밌었다. 엉성하긴 한데 되게 있어 보이는 느낌이랄까. 연우가 코드진행이랑 기승전결이 보이는 것 같아 좋다고 해줬다. 기분이 좋다. 그렇지만 기타가 즉석이라 그런지 기타솔로의 느낌이 강해서 지금까지 쓴 가사의 분위기와는 별로 맞는 것 같지 않았다. 일단 가사부터 완성하자.

2018년 9월 4일
어제 녹음했던 걸 들으며 가사를 만들고 있다. 처음에 벌스로 정했던 가사를 프리코러스로 넣었다. 중간에 막혀서 7줄 쓰고 막혔지만 생각보다 좋은 비유법이 나와서 큰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나비>

날아가고 싶어
나비가 아닌 나비로
도망치고 싶어
00이 없는 세계로

길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의 대상이 되고 고통의 대상이 되고
길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2018년 9월 5일
평의회 회의가 끝나고 주현이의 오디오인터페이스와 마이크를 빌려 커버곡을 녹음하려고 했다. 시도만 했다. 내 노트북이 이상한지 오인페 인식이 안돼서 실패했다. 마이크 소리는 나는데 MR소리 출력이 안돼서 나중에 주현이 노트북을 빌려 하기로 했다.

2018년 9월 6일
벅스 MR을 확인 해 봤는데 59초짜리였다. 엄청 멘붕이었는데 다시 확인하고 받아보니 4분이 넘는 원래 길이였다. 다행이도. 가사를 다 썼다. 정확히 말하면 다 쓴건 아니다. 마지막에 후렴과 전혀 다른 가사를 쓰고 싶은데 아직 그건 다 못썼다. 후렴은 새로운 코드진행으로 정했다. 전위해서 전혀 다른 코드를 쓴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 쓰려고 했던 코드를 아예 후렴에 넣어버렸다. 선호쌤의 키보드를 썼다. 상담실 안에 있는 건데 전기가 안 통해서 도서관 멀티

탭을 빌리느라 전원 켜는데만 애먹었다. 악기가 1000개가 넘어서 엄청 신기했다. 이어폰 꽂고 엄청 심취했다. 근데 교무실 안이라 좀 부끄럽다. 악기도 조금 옛날 스타일이긴 하다. 새소년의 소윤언니가 왔다. 그래서 학교 사람들이 다 싸인 받으러 가고 엄청 몰려있었다. 크크크. 난 싸인 안 받았다. 묵학 때 피아노 반주와 멜로디도 완성했다. 멜로디가 좀 단조롭거나 너무 반복되는 느낌이다. 멜로디만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피아노 반주 치면서 즉석에서 녹음하는 것 말고. 기보를 해야 한다. 기보!!

<나비>
+길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살아가기 조차 버거워

-후렴
아무걱정하지 않으며 살고 싶어
붙잡지마 가두지마 괴롭히지마

친절하지 않아도 000지 않으면 되
평등하진 않더라도 편견만 없음 되

2018년 9월 7일
알고 보니 논문세미나는 발표하는 사람이 8명씩 나뉘는 거고 우리 학년 모두가 듣는 것이었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갑자기 알게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가길 잘 한 것 같다. 엄청 현타왔다. 좋은 말로 하면 자극 받았다고나 할까. 본문을 어떻게 써야할지. 내가 작품 완성 하는 것 외에 할 일을 정리하게 되었다. 중간발표에 대한 감도 조금 온 것 같고? 암튼 참고도 되고 부담도 더 되는 그런 세미나였다. 당장 다음 주가 내 차롄데 더 까일까봐 걱정이다.

2018년 9월 8일
설문지 장수를 세어 봤다. 다행히 내 통계가 맞았다. 새로운 설문지를 돌려야 할지 고민이다. 카라에서 받은 설문지를 읽어보았다. 인식을 조사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고기로 태어나서>를 읽고 있다. 개 도살을 현실적이게 표현한 대목을 읽었는데 정말 구역질 할 정도로 역겨웠다. 이마저도 내가 다 이해하고 알아듣지 못한 것이다. 도살 과정을 읽으며 이해가 되지 않아 계속 반복해 읽었다. 도무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을 곡에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2018년 9월 11일
묵학에 연우랑 <나비>의 기타솔로를 만들고 있다. 첫 소절 끝나고 들어가기 보단 아예 후렴까지 끝나고 기타 솔로가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피아노가 메인이라고 정했다. 뭔가 막막하고 우울하다. 부담스럽다고 했다. 걱정되고 힘들다고 했다.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기를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같다고, 더는 지금처럼 못 도와주겠다고 했다. 레코딩도 자기는 잘 못한다고. 돌집에서부터 창작을 시키지 그러냐고, 결국 네 논문이니 기타도 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아차 싶었다.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도와주길 바라는 것이 아닌 해주길 바라고 있었구나. 너무 쉽게 가려고 했었구나.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건지 정말 다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건지. 확실한 건 내 논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다. 최대한 연주만 부탁해 보기로 했다. <나비>의 가사를 수정하고 덧붙이고 멜로

디를 확정지어야 한다. 애매한 부분이 많다. 기타 부분도 내가 짜봐야겠다. 그래도 울진 않았다. 약속을 지킬 것이다.

2018년 9월 12일
어제 밤에 ppt를 만들다가 잠들었고 오늘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만들려고 했는데 15분 일찍 내려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논문 계획서도 수정하고 중간발표, 세미나 용 ppt도 완성했다. 원래 오늘 12시 까진데 수정한 계획서는 12시 조금 넘어서 제출했고, ppt는 5시에 제출했다ㅋㅋㅋ 원래 논문 계획서는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프로젝트에서 작품으로 형식을 바꿨기 때문에 다시 써야했던 것이다. 논문 제목을 수정했다. <동물권을 알리는 앨범 만들기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동물 문제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고 동물 문제를 알리는 것이나 그 속에 동물권을 알리는 것이나 전해지는 의미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서도 수정하고 제출까지 했고, 제목도 바꿨는데 상현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ppt를 만들다가 파일이 그냥 사라졌다. 밥 먹고 왔는데 USB에 ppt 파일이 그냥 없었다. 백업을 잘 해야겠다. 완전 멘붕이었다. 이 멘붕을 계기로 정신차리자. <나비> 마무리 중이다!! 아자아자. 빨리 다음 곡 만들어야 한다.

2018년 9월 13일
상현쌤을 만나려 했는데 상현쌤이 너무 바빠서 진짜 지나가는 식으로 밖에 못 만났다. 세미나 용 피피티와 수정된 계획서를 상현쌤께 드렸다. 피드백을 받진 못했다. 상현쌤이 너무 바쁘다. 너무행. 오늘 묵학은 문밤쓰 빼앰! 사실 논문을 쓸지 문밤을 볼지 고민했는데 문밤보길 잘 한 것 같다. 우리 학교 졸업생이신 이병우님, 이병건님은 뭔가 그냥 정말 악기 하시는 분 같았고 내가 관심있게 본 것은 보컬을 하신 싱송라 하이디님이신데 이병우님 아내분이시다. 암튼 피아노곡을 쓰시고 동물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딱 내 논문의 전문가 평가를 받으면 좋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하이디님은 엄청 소녀소녀하고 애기애기한 노래를 하셔서 노래 느낌이 다르긴 한데 엄청 좋을 것 같다. 연락만 잘 되면!!

2018년 9월 14일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드디어! 곡을 다 완성했다. 기타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야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레코딩하면서 생각해도 될 것 같다. 내 곡은 피아노 곡이니까.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다. 내가 첫 번째로 발표했는데 진짜 팩트폭력... 발표전에 상현쌤을 만나고 싶었지만 역시나 오늘도 바쁘셔서 만나지 못했다ㅠ 오늘 묵학 때 솔뫼연습을 하다가 끝나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완성한 곡을 치다가 갑자기 막 쳤는데 엄청 괜찮아서 꽂혀버렸다. 더 발전시켜봐야겠다.

2018년 9월 16일
12시 까지 중간발표 PPT와 본문 마감이었다. 11분 늦었다. 정호쌤 정말 칼 같으시다. 12시 1분 되자마자 바로 지각자로 끊어버리셨다. 나는 지각자다. 앞으로 시간제한 있는 과제는 절대 안 늦기로 했다. 마감전에 상현쌤과 연락을 하고 수정하려고 했지만 연락을 하지 못했다. 상현쌤이랑 이야기하기 너무 어렵다. 손명남쌤과 장은정쌤께 전문가 평가 부탁을 위해 연락을 드려야한다. 2번째 곡을 얼른 완성해야한다.

2018년 9월 17일
묵학에 피아노 레코딩을 끝냈다. 아직 다듬진 못했지만 중간발표 때 들려줄 뭔가가 필요했다. 연우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다. 로직과 커지오아이 연결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상담실도 교무실 안에 있는 것이라 쌤들께도 죄송하고 암튼 방음면의 문제가 많다. 보컬 녹음이 걱정된다. 공간과 나의 실력 모두... 아, 건반녹음을 하며 A에서 G로 키를 내렸다. 보컬이 조금 쉬워진 것 같다.
>코드변경 CM7-Bm7-Am7-GM7
저번주 금요일에 막 쳤던 그것도 쳐보면서 후렴 부분의 코드진행을 만든 것 같다. 그냥 벌스와는 전혀다르진 않지만 좀 많이 다른? 코드진행인 것 같다. 뭔가 마음에 든다. 유기동물과 개 농장+강아지 공장 중 어떤 곡에 사용할지 고민중이다.

2018년 9월 18일
드디어 중간발표. 4번째로 발표했다. 생각보다 많은 피드백을 받진 않은 것 같다. 병곤쌤이 논문 제목을 앨범 말고 음악앨범으로 바꾸라고 하셨고 앨범이 왜 앨범이라는 이름인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결국 알려주지 않으셨다. 민혜쌤은 앨범을 만들고 어떻게 알리며 사용할 것인지 질문하셨다. 동물권 단체에 보내서 동물운동을 하면서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했다. 생각보다 잘 끝난 것 같다. 질문들에 무난히 대처했다. 뭔가 발표를 하면서 목적이나 목표가 더 뚜렷해진 것 같다. 후련하기도 하면서 걱정이 더 늘어난 것 같다. 본문을 10월 18일 까지 내야하고, 작품도 완성해야하는 날까지 2주 밖에 남지 않았고 시간은 자꾸만 흐른다. 그래도 오늘은 중간발표 했으니 잠시 쉬자.

2018년 9월 23일
지금까지 본문 조금 쓰고, 고기로 태어나서 개 농장 부분 다 읽고, 민혜쌤은 못 만났고 상현쌤은 여전히 바쁘고, 전문가 평가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연락 못했고, 중간발표 때 완성했다고 뻥찬 과장한 두 번째 곡을 만드는 중이다. 저번에 발전시키던(?)코드로 개 농장+강아지 공장 노래를 만들기로 했고 전에 다 써놓은 가사를 수정해서 입힐 생각이다. 다시 보니 가사 내용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조금 보이고 훅도 더 늘려야 할 것 같다. 맨 처음이랑 중간 훅 모두 코드진행이 조금씩 달라서 '나비'처럼 뭔가 뻔하고 잔잔하고 단순하고 지루한 노래가 되진 않을 것 같다. 고민 중인 건 어떤 키로 할지인데 2개중에 고르지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반복적인 느낌에 더 잘 어울리는 키가 어떤 것일까... 주현이한테 물어봤는데 주현이는 뭔가 피아노 반주를 다양하게 해보라고 했는데 내가 아는 게 없다고 했더니 그냥 하라고 했다. 내가 느끼기에도 그냥 정박에 치는 것 말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어려운 것 같다.

2018년 9월 24일
언니와 논문 이야기를 했다. 언니가 먼저 물어봐서 당당하게 말하기로 마음먹고 숨기지 않으며 이야기했다. 갑자기 욱해서 논문 이야기라기 보단 동물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다. 얘기하면서 내가 아직 그냥 말로 하면 술술 나오지 않을 만큼 부족하구나 싶었다. 본문을 쓰는 중인데 잘 안 써진다. 언니가 그냥 한 챕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쓰고 그 다음에 수정하라고 했다. 나는 지금까지 참고할 자료랑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믿을 만한 내용들만 적었는데 그러면 안되겠다. 먼저 다 적어놓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부분만 남겨 놓아야겠

다.

2018년 9월 26일
어제는 서울에서 집으로 왔는데 논문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대신 오늘은 뭔가 좀 한 것 같다. 첫 번째로 완성했던 <나비>의 악보를 '뮤즈 스코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있다. 두 번째 곡, 강아지공장+개농장도 완성했다. 아직 가사를 조금 더 손보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일단 코드와 구성은 다 짜여진 상태다. 생각보다 곡이 금방 나와서 기쁘다. 악보 그리는 건 너무 어렵고 본문은 여전히 잘 써지지 않는다. 곡에 넣을 베이스라인을 만들기 위해 베이스 라인을 어떻게 짜는 건지 영상을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 쉬운 게 아니었다. 아, 그리고 원래 가제가 꿈이었는데 아마 반복의 영어인 Repeat로 바꿀 것 같다. 베이스뿐만 아니라 드럼을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큐베이스로 여러 가지를 찍어보면서 연구해야할 것 같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을 다시 휙휙 읽어가며 내 본문에 필요한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있다. 처음 읽을 때부터 이렇게 했어야했다.

2018년 9월 27일
너무나 뿌듯하다. <나비>의 악보를 완성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진 않았다. 박자가 내가 부르는 데로 나오진 못할 듯해서 그냥 감안하고 만들었다. 박자가 정말 촌스럽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었으리라. 본문도 좀 쓴 것 같다. 갑자기 사전설문지 폴더에서 예전에 쓰던 본문이 나와서 어떻게 합쳐놓았고, 사전설문지의 결과 부분도 채우고 있는 중이다. 어려운 것들은 아직 다 쓴게 하나도 없지만... 원래 오늘부터 세 번째 곡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내일부터 하기로 했다. 아, 오늘은 피아노 아르페지오 반주법 영상을 찾아봤다. 생각보다 다양한 반주법이 있는데 너무 어려웠다... 민혜쌤이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민혜쌤 만나지도 못하고... 이미 <나비>의 피아노 녹음은 다 한 상태인데... 악기 레코딩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다.

2018년 9월 31일
학교에 왔다. 2시 반에 도착해서 레코딩을 하려고 했는데 미디잭이 없는 상황, 맥북에 오인페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와서 별거 못했다. 집에서 만들었던 나비의 드럼을 들려줬는데 드럼은 박자를 타야지 그루브를 타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박자를 베이스에 옮겨서 이용했다. 베이스 별로인 것 같긴 하지만 첫 베이스이고 그렇게 크게 들어갈게 아닌 잔잔하게, 아주 들릴 듯 말듯하게 넣고 싶어서 음... 그렇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들어보고 피드백 해 준다고 했고, 드럼을 짜야한다. 드럼은 정말 감이 안 잡혀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다. 보컬은 주현이에게 마이크와 오인페를 빌려서 내일 아침에 일찍 내려가서 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보컬은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지만 아침이라 목소리가 잘 나올지 걱정이다. 세 번째 곡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두 번째 곡의 가사 수정은 다 완료했고 내일 아침에 내려가서 다시 멜로디를 점검 해보려한다. 본문을 쓰는 중이다. <Repeat>의 모든 것을 다 했다. 가사, 곡 설명, 가사 해석까지! 악보를 그려야한다. 그러려면 정확한 멜로디가 필요하고 다시 무한 반복... 전문가분들에게 연락드릴 멘트도 짰다. 언제 연락드리지...

2018년 10월 1일

전문가 평가로 하이디님, 손명남쌤, 장은정쌤께 연락을 드렸고 답이 왔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아직 답을 드리진 못했다. 어제 5시까지 공부방에 있다가 6시까지 방에서 책을 읽고 학교에 내려왔다. 책은 카라에서 받은 개식용 금지 국회 토론회 자료를 읽었는데 본문에 필요한 부분에 마킹해가며 읽었다.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맥북을 못 받아서 연우가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리면서 세 번째 곡 코드를 만들고 녹음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 소강당에 몸살림 하러 희정쌤이 오셔서 수업교실1에 가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울려서 작게 했더니 노래부르는 것처럼 안됐다. 뭔가 안되는 날이다. 묵학에 녹음을 하려고 주현이에게 빌려서 소강당에 갔는데 마이크 인식이 안됐다... 내가 오전에 쓰고 정리할 때 한 번 떨어뜨렸는데 그 때 망가진 것 같아서 걱정된다. 마이크도 안되고 너무 피곤해서 피아노 의자에 누워서 그래도 1시간 동안 잠들었다. 진짜 밤을 샌다는 건 엄청난 무리를 하는 것 같다.

2018년 10월 2일
보컬 녹음을 하고 있다. 상현쌤이랑 짧게 면담을 했다. 작품발표 때 까지 작품을 내려면 완벽한 녹음이 아닌 막 녹음이라도 해서 작품을 완성시킨 후에 작품 발표 이후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다. <나비>는 상담실에 있는 커지오아이를 로직과 연결해서 미디 신호로 받아서 녹음하고 수정했다면 나머지 두 곡은 그냥 피아노에 마이크 대고 녹음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작품발표 때 까지 작품완성을 하지 못하면 1차를 못하니까... 제시된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만큼 완성하고 수정해서 보완하는 게 좋겠지. 강연우 없이 하는 보컬 녹음은 조금 어렵기도 했는데 뭐 내 나름대로 잘 한 것 같기도 하다.

2018년 10월 3일
여러 가지로 복잡한 날이다. 오전에 소강당에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연우가 마이크에 너무 가까이 녹음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어제 했던 보컬녹음도 엎고 다시 해야 한다. 나머지 두 곡은 언제하지... 마지막 곡은 아직 완성하지도 않았다. 코드 진행은 만들었는데 가사나 뚜렷한 멜로디가 없다. 정신도 많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냥 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엄청 간절해져서 밤에 오전에 소강당에서 강연우랑 찍던 베이스를 마저 찍었다.

2018년 10월 4일
각성하고 작품만 만들고 있다. 우리 반 애들이 대부분 풋살 가고 없어서 학급활동을 안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소강당에만 있으면서 녹음했다.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세 번째 곡도 완성했다. 사실 벌스에서 훅으로 넘어가는 부분과 훅에서 벌스로 넘어가는 부분이 부자연스럽기도 하지만 뭔가 이런 곡의 진행에도 의미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는 맥북이 없어서 내 노트북 큐베이스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내 노트북에서 오인페를 못 읽어서 뭐지 했는데 오인페를 읽을 수 있는 드라이브를 설치해야하는 거였다. 그래서 설치하고 그러느라 녹음을 엄청 많이 하진 못했다. 대신 묵학에 많이 한 것 같다. 일단 피아노 녹음을 다 했고 유기동물에 관한 노래 보컬을 다 녹음했다. 엄청 동요 창법으로 애기애기하게 불렀다. 일부러 그렇게 부른건데 내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본문은 놓고 작품만 만들고 있다. 내일까지 완성해야하니까. 녹음하고 보컬을 계속 다시 들어보면 여전히 마이크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녹음하고 있다. 이제야 강연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2018년 10월 5일
아침에 또 일찍 내려왔다. 그래도 많이 못했다... 솔뫼 아침연습이 있어서... 오전에는 틀린 피아노 녹음 다시 하고 보컬 녹음 아주 조금했다. 오후에는 2시 30분부터 도서관 책상을 배치하는 등의 작품발표 준비를 우리 학년 다 같이 했다. 찍은 사진들도 전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아빠한테 인쇄를 부탁하고 나는 전산실에서 급하게 뽑은 사진으로 전시 위치를 잡아보려 했으나 전산실, 교무실 모두 프린트 잉크가 말썽이라 엄청 난감했다. 어쨌든 발표 순서나 전시 위치등은 대충 정했다. 묵학 때 녹음을 엄청 열심히 했다. 결론은 다했다는 것이다. 오늘 다 안하면 언제 하나. 퀄리티는 정말 너무너무 떨어진다. 쪽팔릴 정도다. 아빠가 6시쯤 다녀갔다. 내가 부탁한 프린트 한 사진과 사진 전시 할 때 필요한 우드락과 줄, 집개 등을 부탁했는데 그냥 오늘 갖다 줬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덕분에 9시 부터는 도서관에서 내 작품 전시 준비를 했다. 사진 전시 준비를 다 했고 발표 때 틀 용으로 도서관 컴퓨터에 내 노래도 옮겨 놓았다.

2018년 10월 6일
오늘은 가을축제, 작품발표를 한 날이다. 발표준비를 미리 해 놨어야 하는데 완벽하게 하지 못한 티가 너무 많이 났다. 전기를 멀리 이어주는 돌돌이(?)가 이상한건데 내 멀티탭이 이상하다고 뭐라 하셔서 무척 속상했다. 대본도 미리 안썼고 평가지도 오늘 아침에 만들고 작품설명 파일도 오늘 만들어서 완전 정신 없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안내려왔으면 정말 망할 뻔했다. 발표는 5번째로 했다. 내 발표 준비한다고 앞에 연우 발표를 못 본게 너무 미안하다. 발표자체에서 실수를 했다기보단 현재 내 작품이 부끄럽고 아쉬운 것 같다. 가을축제 때문에 정신없었는데 작품 정리할 때 학부모님들이 다 목소리 좋다고, 잘 했다고 칭찬해주셔서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다. 다시 생각해 보면 내 목소리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 근데 대부분 녹음 다시 하는 거냐고, 목소리보다 피아노 소리가 커서 가사가 잘 안들렸다고 해 주셨다. 미디로 다시 녹음하면 가사가 잘 들리는지 신경써야겠다.

2018년 10월 9일
녹음을 다시 해야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었다. 묵학에 일상다반사 회의가 끝나고 겨우 커지오 아이로 미디를 찍었는데 박자도 안 맞고 템포도 안 맞아서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다 엉망이다. 전문가 평가 받을 사람들에게 이번 주 까지 보내야 하니까 빨리 해야 한다.

2018년 10월 11일
오늘 묵학에 피아노 녹음을 했다. 이번엔 박자 템포 다 맞춰서 찍었다. 편집을 해야 한다. 반복되는 구간을 복사 붙여넣기 한다던가 세밀한 박자를 맞추는 등의 편집. 본문 마감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논문 최종발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큰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 계속 '언젠가 하면 되겠지~'만 되풀이 중이다. 내 자신이 불안하다.

2018년 10월 12일
이제 전문가 평가 받을 분들에게 보내야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 곡이 완성되지 않아 못 보내고 있는 중이다. 카라는 메일을 읽고 아무런 답이 없어서 꿀벌님께 문자드렸는데 영화제 때문에 바쁘셔서 다음주에나 메일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다. 이러다가 본문 마감 전까지 못

받는 게 아닌가 불안하다. 오늘 3교시에 논문 수업을 했다. 본문 형식을 맞췄다. 스타일 같은 거. 숙제는 화요일까지 논문 초록 써오긴데 정호쌤이 너희 결과는 다 나온거잖아? 했을 때 뭔가 철렁했다. 정말 논문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마무리하고 발표를 준비해야하는 시기구나. 한컴에 신기한 기능들이 많았다. 일단 차례뽑기 기능이 놀라웠다. 난 지금까지 뭐 한거지 자괴감이 들기도 하면서... Repeat의 피아노 찍어놓은 것 박자 수정하고 베이스를 찍었다.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처음 나비의 베이스 찍을 때 보다 뭔가 감이 생긴 것 같다. 조금 더 금방 찍은 것 같다.

2018년 10월 14일
평가 받을 분들게 메일을 다 보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오전까지 작품완성을 하고 급하게 메일로 보냈다. 틴카라 분들께도 싹 연락을 돌려서 메일 주소를 받았다. 모든 사람에게 받진 않았지만 꽤 많이 받았다. 기숙사에서 논문만 쓰려고 했는데 뭔가 많이 안한 것 같다. 쓰고 있던 본문을 형식에 맞게 옮겼는데 생각보다 쪽 수가 너무 적어서 충격적이었다. 곡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나비는 그냥 그대로 음원 추출했고, Repeat는 금요일에 한 것에서 딱히 더 수정하진 않았고, 너라면 기다릴게는 피아노 박자도 다 맞추고 기타랑 에그 쉐이크(?)랑 오르간을 추가했다. 뭔가 새로 찍었다기 보단 피아노랑 똑같은 소리를 두 번 내는 느낌? 후렴에선 피아노 찍은 걸 그대로 기타로 옮겨와서 그렇게 티가 나진 않지만 조금 더 소리가 풍부해 진 것 같다. 확실히 로직이 큐베이스보다 훨씬 좋다. 아쉬운 점은 피아노 녹음할 때 서스테인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벌스 부분의 피아노 반주 첫 부분이 계속 끊기는 느낌이다. 화요일 오전까지 평가를 다 받을 생각이다. 카라에서 평가가 제 때 올지 모르겠다. 걱정된다. 하이디님께도 메일이 잘 안보내졌다ㅠㅠ

2018년 10월 15일
일찍 내려가려고 했는데 어젠 결국 일찍 자버렸고 오늘은 그냥 평소대로 내려왔다. 내려오자마자 어제 답변이 온 틴카라 분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하이디님은 계속 없는 메일이라고 떠서 오후에 카톡으로 보내드렸다. 성현언니와 한슬언니에게도 평가를 부탁해서 메일을 보냈다. 내일 오전까지 받아서 내일이 마감인 초록에 평가 내용을 넣어야 한다. 열심히 본문을 쓰는 중인데 너무 어렵다. 삼간디 음악제와 본문 마감일이 겹쳐서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본문에 넣어야 하는 내용들은 사전에 정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닌 현 사회의 모습을 넣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본문 쓰기 어려운 것 같다. 이건 뭐, 혹은 저건 이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의내려진 게 없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봐야 한다. 내 논문이 쓰기 어려운 논문이라고 변명하는 거 맞는데 내가 잡은 주젠데 뭐 어쩌랴. 사운드 클라우드와 네이버 블로그에 노래, 작품 설명 글을 올렸다. 앨범의 이름은 '가까운 만큼 멀리'로 정했고 앨범 아트로 정한 사진도 앨범 이름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맘에 든다.

2018년 10월 16일
논문을 거의 못 썼다. 평가 부탁드렸던 사람들에게 조금씩 평가가 오고 있다. 거의 모든 평가에 빠짐없이 보컬이 안 들린다는 평가가 있다. 나름 조절한다고 조절했는데 확실히 가사를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믹싱은 쉬우니까 평가 받은 걸 바탕으로 한 번 더 수정해야겠다. 보컬이 밀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수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보컬 트랙 음질이 깨진다는 건 절대 수정 못할 것 같다. 논문의 초록을 작성했다. 이렇게

쓰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 700자 정도가 나왔다. 표준은 600자였지만 괜찮을 것 같다.

2018년 10월 17일
내일이 본문 마감이다. 아마 이 일지까지만 본문에 들어가겠지. 정말 본문을 미친 듯이 쓰는 중이다. 카라에서도 답변이 왔는데 정말 평가라기보단 답변에 가까운 정도의 글이었다. 10줄도 안 되는 글로 바빠서 늦었다는 내용이 절반이다. 조금 실망스럽다. 하이디님의 평가는 뭔가 그 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자세했다. 장은정쌤과는 결국 연락이 안됐고 손명남쌤은 뭔가 역시 전문가~ 이런 느낌? 내 본문이 무척 짧을까봐 걱정했는데 쓰고 보니 30쪽이 넘는 아주 많은 양이었다. 아직 사진도 다 넣지 않았는데 그것 까지 넣으면 얼마나 많아질지 모르겠다. 악보를 만들어야 한다. 정말 꼭 만들어야 한다. 사운드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렸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유튜브에는 안 올렸다. 그래서 유튜브는 노래를 다시 수정하고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한다.